

할렐루야, 진정 나의 피난처요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영역을 맡겨 드리고, 의지함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라니 시편 91장 1-2절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4년 2월 24일 (토) 제 1958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 선교지에 기독교 화가와 음악가가 필요하다

####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며 로잔 글로벌 분석

몇 년 전 볼리비아 인디언 목장 일꾼들이 사는 한 마을 전체가 주님께 나아왔을 때, 내 친구 선교사들은 몇 가지 어려운 질문에 직면했다. 이제 주님을 구주로 알게 된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 대부분이 성경을 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성경을 공부하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떤 노래를 부르도록 권할까? 그들의 문화적 표현에 예전(liturgy)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공동체의 어떤 관습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고백, 찬양, 경배를 표현해야 할까? 이 질문들에 대해 나의 선교사 친구들은 옳은 일을 했다. 그들은 볼리비아 인디언 신자들이 자신만의 음악적 표현을 만들도록 격려했다. 그들은 문화적으로 합당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했고, 원주민들이 직접 작곡한 노래를 부르고, 친숙하고 진심 어린 표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적절하고 현명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미한다. 참된 예배는 우리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나 공동체의 핵심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우리나라 친숙한 표현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해방되고 변화된 그 마음에서 노래와 춤, 의식과 전례 및 장식의 고유한 표현이 샘솟게 된다. 또한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종종 문맹으로 인해 많은 의사소통이 필연적으로 예술적 또는 상상적 표현을 통해 이루어진다. 음악, 드라마, 스토리텔링, 그림, 건축, 마임, 인형, 공예, 축제, 운동, 의식, 음식, 장식 등은 공동체가 이를 통해 예배하고, 배우고, 제자 삼고, 축하하는 모든 형태의 예술적 표현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서구 세계에서 흔히 '예술'이라고 부른다)이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다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기 어렵고, 복음의 전 달은 덜 효과적일 것이며, 공동체의 성장은 더딜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표현이 낯설고 어색하거나, 단순히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예술적 소통가와 예술적 표현 전문가들은 종종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원주민 기독교 공동체 형성을 진전시키는 데 중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위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예술적이고 인간적인 표현 전문가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디자인과 표현에 있어 비범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목사나 교사, 음악가, 화가, 작가, 관리자, 공장 노동자, 농부 또는 주부일 수 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상상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모든 사람이 '상상력'을 갖고 있지만, 문화적으로 적절한 노래나 가사, 시, 이야기, 움직임, 시각적 표현, 환경적 감수성 등을 만들어 내는 미적 감수성의 비범한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또한 적절한 예술 형식과 방법을 예배나 가르침, 제자도 훈련, 전도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비전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기독교 음악가와 예술가의 중요한 역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머리로 듣고 이해하기 훨씬 전에 마음으로 듣고 이해한다.

(3면으로 계속)



### 팀 켈러가 알려주는 공격적 변증법

#### 기독교가 진리임을 원하도록 하라!

공격과 수비 없이 스포츠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 수비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약점으로 공격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한다. 이 비유를 사용하면 변증에도 방어적 변증과 공격적 변증, 두 가지가 있다. 방어적 측면으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반대하는 주장에 맞서 기독교 신앙을 옹호한다. 반대로 공격적인 변증을 통해 우리는 세상 세계관의 약점을 드러낸다. 수비에도 능했던 팀 켈러지만, 그는 동시에 공격적 변증의 이유와 방법을 가르쳤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종교적 신념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라도 현실 속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핵심 사항에 관해서 많은 가정을 한다. 이러한 신념은 폭로되고 조사되어야 한다. 켈러의 가장 유명한 문구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이 가진 의심의 의심하라"이다.

사람들은 (비록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아이디어 시장'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켈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스승 중 한 사람인 C. 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건 아주 작은 신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에 유의하자.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 세계관은 고착해야 물질주의, 범신론, 그리고 유신론 세 가지뿐이다. (6면으로 계속)

공격적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

기독교를 수호하는 대중 옹호자로서 켈러는 이 세상에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시론 3면  
민경업 목사



푸른초장 4면  
박희근 목사



16면  
신앙독서 독후감 수상작  
임보라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Miju Holy City Movement  
Whole churches unite to spread whole gospels to whole city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연합기도회

일시: 2024. 3. 3(주일) 오후 6시  
강사: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장소: 나성순복음교회 본당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주관: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발행인 칼럼

기도할 수 있는데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맨해튼의 타임스 스퀘어는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 보이는 모든 것이 화려하다. 특히 세계적인 광고들이 함께 모여 주변 모든 건물을 도배한 듯하다. 워낙 빨리 바뀌는 수십 개의 광고라 눈을 즐기지 몰라도 그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담기는 어렵다. 광고는 아니지만 교회 건물에 붙어 있던 글귀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내 가슴에 남아 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대전의 어느 교회 담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으리라. 걱정은 그 사람의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걱정하는 자신의 신체 전반에 안 좋게 나타나고, 주변 관계도 부실하게 만든다. 걱정의 뚜렷한 대안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오래 전 우리 부부는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었고 두 아들은 보스턴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아들과 한 동안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었다. 우리는 경황(景況)이 없어 전화를 못하였는데 아들도 바빠 연락이 없는 줄 알았다.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그동안 놀라운 일이 있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두 아들이 탄차가 빙판 길에 미끄러지면서 빙글빙글 돌다가 길옆의 전신주에 부딪힌 것이었다.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 갔다가 다음날 병원에서 나왔고 그 후 몸도 주스르고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고 나서 우리에게 전화하였다. 우리가 놀랄까봐 한 동안 시간을 보내기도 한 셈이다.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위험한 상황이었다. 생각해보니 보스턴에 그 날 그 눈이 올 때 우리 부부는 한국에서 막 시작된 사순절 기도회를 하고 있었다. 아들의 사고와 부모의 기도가 연관이 없었을까. 분명했다. 확인했다. 연관이 있었다고. 우리는 아들들을 언제나 가까이서 지켜볼 수 없었다. 아무리 가까이 있었다 한들 그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부모로서 해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았다. 부모의 한계 밖에 있는 자녀들. 그러나 한계 밖의 자녀들을 위해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다. 다름 아닌 기도였다.

걱정을 면밀히 연구조사한 통계가 있었다. 아마 어느 기관에서 조사하던 비슷할 것이다.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걱정거리 중의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이었다.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결코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0%는 "내가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에 관한 걱정거리라고 한다. 실제로는 걸리지 않을 확률이 더 큰 데도 말이다. 그리고 정말 사소한 걱정거리가 12%, 바꿀 수 있는 걱정이 4%, 바꿀 수 없는 걱정이 4% 라고 하였다. 불필요한 걱정 96%인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평안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필자도 그랬다. 공연한 걱정거리를 가지고 공공거리다가 어느 예배에 참석하여 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날 예배 때 작별했다. 근심 그리고 걱정과.

그 사고 후에 작은 아들에게 물었다.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 단 하나의 요청이 있었다. "아빠 엄마의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의 기도이다. 2024년도 사순절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나지막이 그러나 확신 있게 불러본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무교'는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무교인들은 우리의 복음 전도 노력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전이다

지난 십 년간 종교계에서는 새로운 인구통계 항목인 "무교(Nones)"가 꾸준히 비율을 높이며 두각을 나타냈다. "무교"는 종교 정체성 조사에서 "(종교) 없음"이라고 응답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로서 기존의 종교 전통과 일치하는 부분이 없음을 나타낸다. 퓨(Pew)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무교라고 답한 사람들 가운데 17퍼센트가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또 20퍼센트는 불가지론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63%)는 단지 "특별히 관심 가는 종교 없음"을 선택했다.

무교 가운데 69퍼센트는 50세 미만이고 31퍼센트는 50세 이상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무교는 남성(51%)과 여성(47%)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지난 50년간 무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1950년대에 특정 종교와 관련이 없다고 말한 사람은 거의 0명에 가까웠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인 네 명 중 한 명(28%)이 무교라고 말한다. 이러한 추세는 현대 세계가 처한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상 종교계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무교의 부상을 신앙 포기나 무종교(irreligiosity)의 증가라고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럼에도 한 가지 기억할 점은 무교가 우리 주변에서 없었던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유행하는 신앙으로서의 기독교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종교 정체성을 채택한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니케아 신경의 고백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기독교 신앙을 거부한다는 건, 그 종교가 주장하는 명제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간주한다. 물론 이것도 사람들이 종교 정체성을 형성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종교를 가지지 않는 이유로 무교인 사람이 가장 자주 제기하는 게 다름 아니라 종교의 가르침에 대한 의문이다. 무교의 무려 60퍼센트가 종교의 가르침에 대한 의문이 무종교를 지향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말한다.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믿음이 종교의 가르침에 대한 의문에 기반을 둔다고 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각각 83%와 78%), "특별히 관심 가는 종교가 없음"이라는 응답자 중에서는 단지 절반 미만(48%)이 같은 대답을 했다. 무교 중 상당수(47%)가 종교 단체에 대한 혐오가 비종교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답했다. 약 3분의 1(30%)은 종교인으로부터 겪은 나쁜 경험을 언급한다. 전체적으로, 무교의 55퍼센트가 종교 단체나 종교인(또는 둘 다)을 자신들이 비종교적인 주요 이유로 언급했다.

믿음의 형성이라는 과정이 단지 추론에만 기반하지 않고 매우 복잡하기에 이런 결과가 놀랍지 않다. 팀 켈러는 인간의 지식에는 (1) 합리적/지적, (2) 경험적/직관적, (3) 사회적/실용적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서 (1) "그것에 타당한 이유가 있고" (2) "그것이 우리의 내적 경험과 일치하며" (3) "그것을 기반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진짜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켈러는 "적어도 교회에 대한 환멸 때문에 '확고하고 활동적인 신자'에서 '완전한 불신자'로 변하는 일부 사람들은 세 번째의 사회적 측면에서 보아야 하며, 그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만큼은 거의 확고하게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믿었다. 특히 종교나 정치처럼 사회 현상에 대한 믿음 중 상당수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사회적/실용적 측면에 의

해 형성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유형의 믿음을 경제학자 아놀드 클링은 "유행을 타는 믿음"이라고 불렀다. 즉, 내용의 타당성과 관계없이 동료들 사이에서 나의 지위를 높이거나 최소한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믿음을 말한다.

나를 포함한 많은 보수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동의할 것이다. 양생애, 섭식 장애, 성전환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이 급증하고 있다. 그 원인은 그런 행동의 기본이 되는 신념이 점점 더 대중화되고 동료들에 의해 확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종종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려면 누구나 다 인기를 얻고 널리 채택되기를 원하는 믿음, 즉 기독교의 믿음에도 얼마든지 동일한 과정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 믿음은 참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통 복음주의 신앙이 유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기독교는 미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유행하는 믿음이었다.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기독교는 가장 유행하는 믿음 중 하나로서 그 지위를 유지했다. 1960년대가 되어서야 하나의 문화 브랜드로서 누리던 지배력을 잃기 시작했다. 따라서 상당수의 미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종교 꼬리표를 별 부담 없이 "그리스도인"에서 "특별히 관심 가는 종교가 없음"으로 바꾸는 데에는 족히 또 한 번의 50년이 더 걸릴 것이다.

(9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톨릭서점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독사까운
(323) 737-7699

교회인쇄물·한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신년 교회배너 | 한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 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ll@hotmail.com

202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4년 6월 29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함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주해하라
1. 구약주해: 레위기 1:1-9
2. 신약주해: 갈라디아서 2:11-21
3. 논문제목: 팬데믹 이후 주일학교(차세대) 활성화 방안과 전략
4. 설교본문(하나 택일): 구약 - 사사기 2:1-10 4 제목/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신약 - 골로새서 1:24 제목/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김요섭구약주해.pdf)
c.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4년 3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4년 3월30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8회 총회기간(5월 21일~24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4년 5월 20일(월)~21일(화)
장소: Embassy Suites by Hilton San Francisco Airport Waterfront
150 Anza Blvd, Burlingame, CA 94010
제출서류: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4년 6월29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약력과 자서전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f. 명함판 사진 2장
g.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김요섭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0,21)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김요섭 목사 (Rev. Joseph Y. Kim)
주소: 2908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18
전화: 213-215-8523 / 이메일 laredeemer@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heepark91@gmail.com
고시부 서기: 김요섭 목사(Rev. Joseph Y. Kim) laredeemer@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김성국 목사
서기: 유진상 목사
고시부부장: 박희근 목사
고시부서기: 김요섭 목사

### 선교지에 기독교 화가와 음악가가 필요하다

(1면에서 계속)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자나 변증가가 아니라 예술가와 시인이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나는 기독교 음악가와 예술가들이 세계 복음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외치는 것이다. 지상명령이 진정으로 수행된 곳에 침투된 문화에서 자신의 마음의 언어와 문화적 스타일로 예배하고 신앙을 선포하게 되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이다. 이러한 마음의 언어와 문화적 스타일은 예술 사역 전문가 또는 상상력이 풍부한 표현 전문가인 토착 예술가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시각과 음악, 스토리텔링 또는 기타 집합적인 표현의 역할이 사용되는 의식이나 예전 또는 공식 대회에서 공적 및 사적 예배의 표현에서 믿는 공동체를 축전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예술 사역 전문가이다.

“현재 예배는 현대 복음주의에서 잃어버린 보석입니다. ... 그것은 현대 교회에서 잃어버린 하나의 빛나는 보석이며, 나는 우리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토저(A. W. Tozer)는 이렇게 썼다. 그리고 가장 귀중한 보석은 자신의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되는 예배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징과 은유, 의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예배는 머리의 언어를 넘어 마음의 언어로 하나님의 실재와 진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술적 표현의 영역일 때가 많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격과 나라의 실재를 말할 때 뛰어넘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현대의 예배 예술가들을 특별히 준비시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배와 예술 사역 전문가들을 교회와 그 사명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배치해야 한다.

**필요: 예술가와 음악가를 위한 선교적 구조**

예술적 그리스도인은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하다. 바로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구조이다. 처음부터 ACT Int'l은 사람들이 적절한 문화적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선포하도록 돕고, 교회가 적절한 예배를 열 방에 가져오게 하는 세계 복음화와 총체적 사역을 위해 음악가와 예술가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 전념해 왔다. 이 일들은 음악과 예술을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의 문화를 되찾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 명령의 열쇠이다. 예술적 그리스도인은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하다. 바로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구조이다. 그래서 ACT Int'l은 이 세 가지 영역을 모두 제공하는 데 전념해 왔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술 사역자를 찾고 파송하려는 더 많은 선교 기관이 필요하다.

**필요: 예술과 음악 분야에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더 많은 제자 훈련과 교육**

우리는 또한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예술가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더 심도 있는 훈련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이러한 필요는 현재 uSeminary, org 및 Worshipedia.org라고 하는 예술-사역 훈련 프로그램의 형태로 이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경험 많은 예술 사역 전문가들이 그들의 지혜를 구체화하고 전달할 수 있는 고품질, 저비용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예술 사역을 위한 성경적 신학, 성경적 전략 및 성경적 기술을 탐구한다. 우리는 현재 uSeminary, Worshipedia, uSeminary Publishing 세 가지 교육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포털을 보유하고 있다. ACT Int'l 창작 예술가 커뮤니티는 이미 사역 중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두 명의 초기 예는 현대 음악가인 마티 맥콜(Marty McCall)과 스캇 웨슬리 브라운(Scott Wesley Brown)이다. 두 형제는 내슈빌 음악가를 돌보는 데 중점을 둔 월간 ACT Int'l Christian Musicians Fellowship을 주최하는 데 서로 다른 시간에 나와 함께하게 되었다. 마티와 스캇의 목회적 감각이 표면화되자, 하나님은 순회 사역에 예배 목회를 추가하여 지역 교회에서 리더십 역할을 하도록 두 사람을 감동시켰다. ACT Int'l과 연결된 다른

사람들은 해외에서 단기 음악 봉사 활동을 했다. 일단 지역 교회의 지경 너머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예술적 방법과 전략을 통한 단기 선교와 지속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쉬워졌다.

**봉사할 준비가 됨: 예배 예술과 다른 창조적인 하나님 나라 일꾼들**

창조적인 하나님 나라 일꾼들과 예배와 예술 사역 전문가들은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잡아당김을 느끼고 있다. 많은 사람이 멘토링과 지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을 식별하고, 그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을 배치하는 구조를 개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의도적으로 격려해야 한다. 세계 복음화는 예술 사역의 실천가와 상상력이 풍부한 표현 전문가의 참여 없이는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창의적이려면, 매일의 예배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집중력과 사명을 주님께 간구하고, 당신의 예술적 열정과 기술을 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신이 교회에서 섬기는 리더라면 어떤 자격이든, 당신의 영향이 미치는 영역에서 예술적인 사람들을 찾으라고 나는 촉구하고 싶다. 그런 다음 그들을 볼 때,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연결하고, 긍정하고 존경하고, 지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강력한 방법을 상상해 보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그의 영광을 표현하고, 용서와 접근에 대한 예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성령께서 많은 사람의 삶에서 역사하실 아름다운 그릇으로 봉사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우리를 흑암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해방된 주님의 예술 영역의 종들의 아름다움을 통해 세계 복음 전도가 더욱 번성하게 될 것이다. 부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이 풍부한 창조적 예술가 그룹을 참여시키고 돌보는 일을 지지하게 되기를 바란다.

by Byron L. Spradlin

### 시론

##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

사람은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까? 진정한 만족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얼마나 가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름의 통찰력을 제공한 책을 읽었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로 번역되었는데 원제목이 더 마음에 와닿는다. "Repacking Your Bags : Lighten Your Load for the Rest of Your Life." 당신의 가방을 다시 싸라. 당신 인생의 후반부를 위해 짐을 가볍게 하라. 이 책의 서문에 덕이라는 사람이 탐장이 되어 동부 아프리카 세렝게티 고원지

대를 12명과 함께 여행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덕은 침단소재로 만들어진 커다란 배낭을 짊어지고 간다. 그 배낭에는 수많은 버클, 걸쇠, 지퍼가 달려 있었고, 크고 작은 주머니들이 칸칸이 붙어 있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 원주민인 마사이 부족 코이에라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난다. 코이에는 키가 크고 비쩍 말랐으며 그의 짐이라고는 창 한 자루와 막대기 하나뿐이었다. 코이에는 덕이 짊어지고 가는 배낭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고 그 안에 무엇이 그리 많이 들어있는지 궁금해 했다. 기다렸다는 듯 덕은 코이에를 위해서 자랑스럽게 배낭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 보여주었다. 각종 식기용품, 가위, 칼, 삽, 나침반, 망원경, 지도, 수첩, 필기구, 각종 옷가지들, 비상약, 응급치료도구, 무엇이든 보관할 수 있는 방수 봉투 등등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다. 코이에는 작은 쇼핑센터와도 같은 덕의 배낭 안의 짐들을 하나하나 뜯어 보고는 이렇게 진지하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짧지만 깊은 울림이 담긴 이 질문에 받고 덕은 온 몸이 굳어져 버렸다. 덕은 코이에의 질문에 선포 대답할 수 없었다. 이번 여행을 위해서 자기가 짊어지고 온 짐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었는지, 또한 자신이 평생에 걸쳐 짊어졌던 짐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했는지 쉽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솔직히 어떤 것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준 것도 인정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았음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정말이지 계속 짊어지고 다녀야 할 만큼 중요한 것들은 몇 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날 출발에 앞서 배낭을 꾸리면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을 골라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은 여정을 마칠 때까지 그렇게 나눠줘 버린 물건들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이 결코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배낭이 가벼워진 만큼 덕은 남은 여행 동안 등짐이 가벼워진 이상으로 마음도 활기차게 느껴졌다.

우리가 마사이 부족처럼 살 수는 없다. 창 하나, 막대기 하나 들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지니고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짜 행복한가 하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 미국의 작가이자 유튜브 구독자 144만 명을 보유한 인물 루언서인 마크 맨슨이 한국을 여행하고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라고 한 것은 충격적이다. 그는 한국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인들은 경제적으로 그렇게도 열망하던 선진국 대열에 오래 전에 들어가 있고, 뿐만 아니라 K-컬처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되었지만, 과도한 경쟁의식과 잔인한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었고 심리적으로 낙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 사는 한인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현재 한국은 세계 1위 자살 국가라는 오명을 20년째 떨치고 있는 것처럼 한인 이민자들의 자살률이 아시아계에서 가장 높으며 타인종에 비해 무려 2-3배나 높다. 전문가들은 한인 특유의 성공 지상주의와 치열한 경쟁, 경제적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남을 의식하는 체면 중시, 우울증 등 정신 질환 선입견과 대처 부족 등으로 분석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딤후6:7,8) 이제 무엇을 더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덜어야 행복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minkyungjob@gmail.com

### Candidacy Qualification

Individuals who have obtained or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4 (including the 30th) with a Master of Divinity (M.Div) degree from seminaries managed by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r affiliated with the General Assembly, and are committed to Reformed Theology with a blameless life in faith, clear calling and spiritual leadership.

### Exam Subjects

- Exegesis on Reformed Theology Perspective
- a) Written Test :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b) Written Assignment :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 (3) Thesis Paper (4) Sermon Manuscript
- (1) OT Exegesis Text : Leviticus 1:1-9
- (2) NT Exegesis Text : Galatians 2:11-21
- (3) Thesis Topic : "Revitalization Plans & Strategies for Sunday School (Next Generation) after Pandemic"
- (4) Sermon Text : (Choose One) O.T- Judges 2:1-10 "There Arose Another Generation after Them", N.T- Colossians 1:24 "Lacking in the Sufferings of Christ"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spaced,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JosephKim-OTExegesisPaper.pdf)
- c) Oral Interview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4

##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0, 2024 (Mailed documents must be post-marked by March 30, 2024.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b)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Candidates.
-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8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1-24, 2024).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passed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 Exam Date and Place

- a) Dates : May 20(Mon)~21(Tue), 2024
- b) Place : Embassy Suites by Hilton San Francisco Airport Waterfront  
150 Anza Blvd, Burlingame, CA 94010

### Accompanying Documents

-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4.
-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under which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g) Fee: \$100 (USD). Notice after receipt

### Miscellaneous Information

-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for the dates of exam (5/20,21) through Rev. Joseph Kim
- b) Candidates may use laptop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 (1) The Laptop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the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 Submit To

Rev. Joseph Y. Kim  
Address : 2908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18  
Cell : 213-215-8523 E-mail : laredeemer@gmail.com

###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David H. Park (917) 254-0887 heepark91@gmail.com
- 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Joseph Y. Kim 213-215-8523 laredeemer@gmail.com

###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 김성국 목사  
서기 : 유진상 목사  
고시부부장 : 박희근 목사  
고시부서기 : 김요섭 목사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 긴장과 이완

이곳에서는 수시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경험을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꾸부러거리지? 시간이 없는데... 과연 제 때?'... 또한 이곳에서는 긴장이 이완되고 안정감을 찾는 경

험도 합니다. '왔다. 움직인다. 들어간다. 이제 됐다...' 과연 이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항공기 탑승 게이트입니다. 비행기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발 2~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수속을 하고,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화물을 위탁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출국 심사 받고, 그리고 항공기 탑승을 위해 빠른 걸음으로 게이트로 향합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여행자들이 감당해야 할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종종 탑승 게이트에 도착한 후에도 빈번한 비행기 연착이나 결항으로 불안감과 긴장감이 증폭될 때가 있습니다. 여행의 목적이 휴가이거나, 직행이면 그래도 괜찮지만, 비행기 환승을 해야 한다면, 혹은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참석해야 할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출발지의 비행기 연착은 이미 느끼는 긴장감을 증폭시킵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기상악화나 천재지변으로 생겼다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하지만 비행기 기체의 고장, 전편 비행기의 늦은 도착, 승무원의 부족, 기장의 늦은 출발, 사라진 승객의 짐 등등... 비행사가 잘못 운영해서 생기는 연착과 결항은 승객들의 불만족 지수를 극도로 높입니다. 몇 년 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미션 유럽에 참석했습니다. LA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데, 전편 비행기가 늦게 게이트에 도착해서 출발이 45분 연착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마드리드행 비행기로 환승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환승 게이트까지 거리가 얼마나 걸릴까? 어떻게 앞 좌석 승객들을 뚫고 빨리 항공기를 빠져나가자? 승무원에게 부탁하면 먼저 내리게 해 줄까? 다음 비행기를 놓치면 어떻게 하지? 나

로 인해 컨퍼런스에 지장이 생기면 어쩌지?" 생각할수록 점점 긴장감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자, 승무원이 저처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승객들이 먼저 내리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비행기 활주로에 미리 준비된 밴에 탑승할 수 있었고 밴 기사님이 마치 Door to Door 서비스처럼 활주로를 가 로질러 가서 환승 항공기까지 태워주었습니다. 무사히 다음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 비로소 고조되었던 긴장감이 이완되고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누구는 생활 속에 적당한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삶에 아무런 긴장감이 없으면 나태해지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무책임해 집니다. 반면에 적당히 긴장할 때,

좀 더 조심하게 되고, 실수가 적어서 사고가 날 위험이 줄어 듭니다. 적당한 긴장감이 삶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긴장감이 필요할까요? 아무런 긴장감이 없이 몸과 마음이 마냥 편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적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은 먼 추억과 같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영성을 잃어 갑니다. 반면에 영적인 긴장감은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축복의 통로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삽시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영적인 안정감과 쉼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

## 푸/른/초/장

박희근 목사  
(뉴욕동원장로교회)



혹시 이런 우화를 들어보셨습니까? 제목은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몹시 사랑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매일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매일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다투기 시작했고, 끝내 헤어 집니다. 그들은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 난 잘못 없어!"

양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열정은 있는데 신앙의 바른 지식이 없는 경우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후에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중에 그의 후손인 웃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 법궤는 오벰에돔의 집에서 3개월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70년 머문 아비나답의 집에는 죽음의 결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은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결국 휘청거리는 삶이고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느헤미야는 최고의 리더십을 보여준 지도자로 언

야 할 것입니다. 이집에서 탁월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비결입니다.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즐겨워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했습니다. 예배를 목말라 했습니다. 다윗의 예배는 언제나 축제로, 동시에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가슴과 영혼의 열정이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축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최우선의 일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서 예수의 피를 뿌림 받아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올려 용서함 받은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제사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남김없이 다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제물을 남기지 말고 다 드려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기름이란 하나님의 드려진 희생 제물인 동물의 내장이나 기름을 남김없이 다 불살라 제단 위에 화제로,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것

입니다. 셋째는, 첫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의 생활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필요합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를 먼저 떼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을 내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주님께 아무 것도 드릴 수 없는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그때부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습니다. 늘 첫 열매, 첫 시간, 첫 헌신, 첫 봉사를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 시며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예배는 신앙의 보석입니다

### 출애굽기 23:18-19



과이고, 3개월 머문 오벰에돔의 집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왜일까요? 중요한 교훈이 있는 데 바른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오래" 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고, 신앙생활의 길이 보다 얼마나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신앙의 질이 중요함을 교훈합니다. 신앙의 연조(연수)보다, 교회에서의 직분보다 신앙의 태도(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보다 "바로" 를 자랑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삼상2:30)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경건이라 칼빈은 말했고, 이 경건생활의 첫걸음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 살아있는

제나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지도자의 최고 자질) 그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공사를 시작할 때에 누구와 함께,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했었던가요? 3장1절을 보면 대제사장 및 제사장들과 함께 일을 시작하면서 양문부터 수리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이 드나드는 양문부터 복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성벽 재건을 마치고 신앙재건운동을 할 때도 그가 먼저 한 일은 제사장들을 복직시켜준 일입니다(7장1절).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 즉 예배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까? 이런 예배 중심의 삶은 성경의 인물 중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또한 그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바른 예배가 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인을 질문하면서 더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론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 하나님께 몸을 보여 제사할 때 지켜야 할 원리를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예배의 네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희생의 피가 바르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보혈의 능력)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인류구속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 우리는 보혈이라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제물의 피를 대신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곧 회개의 기도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겸손히 무릎 꿇고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인데, 희생의 기름이 남겨졌다 는 것은 희생의 제사가 온전치 못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자신을 하나님께 남김없이 다 드렸습니 다. 우리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헌신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완전한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남겨진 기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첫째 버려지고, 둘째 더럽혀지며, 셋째 썩어지기 때문 입니다. 남겨진 기름덩어리, 곧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돈, 시간, 건강, 재능은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더럽히고, 썩게 하고, 망가뜨리는데 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떤 일부라도 밖에 버려지거나, 더럽혀지거나, 썩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게 주를 위해 바칠 때, 주님께서는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것

넷째는 공홀과 용서가 있는 예배입니다. 어미젖으로 살아지는 새끼 염소의 모습이 어쩐지 너무 불쌍해 보이는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자비와 공홀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너희는 가서 내가 공홀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먼저는 부족한 죄인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와 하나님께 공홀히 여김을 받아 용서함 받는 것이고 다음은 죄인이 서로를 공홀히 여기며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용서를 실천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으로 삼는 것처럼 잔인하고 무정한 인생을 산다면,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한다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슬프게 할 것입니다.

신앙의 보석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곧 신앙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주목하십니다. (요4:23) (대하16:9) 우리 모두 네 가지 요소를 실천하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공홀을 체험하고, 받은 은혜로 이웃에게 공홀과 용서를 베푸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eepark91@gmail.com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유엔, 부모와 자녀를 공격하는 성적 권리와 젠더 이데올로기 추진함과 동시 글로벌 무시되는 "학부모 권리" - 크리스천의 대응책은? -2-



트랜스젠더의 44%가 '심각한 심리적 고통' 1/3은 노숙 경험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되는 트랜스젠더 공교육과 정책, 건강할까요?

The U.S. Transgender Survey from the 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 (국립 트랜스젠더 평등 센터)의 트랜스젠더 연구에 따르면 자기 스스로를 "트랜스-성별 전환자"라고 식별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지난 30일 이내에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 트랜스젠더 평등 센터의 미국 트랜스젠더 설문조사는 2022년 10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트랜(Trans) 또는 논바이너리(Non-binary:남.녀 성별이 없는)로 정체성을 밝힌 92,32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는 18세 이상의 84,0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16세 이상의 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태어난 성별이 아닌, 다른 성 정체성으로 살고있는 참가자의 79%가 자신의 삶에 "훨씬 더 만족한다"라고 답하고, 15%가 "조금 더 만족한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3%는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지도 덜 만족하지도 않는다"고 답했으며, 1%는 "조금 덜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2%의 참가자는 자신의 삶에 "훨씬 덜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설문 연구과정에서 총체적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만족도가 높았을 수 있으나, 나중에 성전환을 극심하게 후회하고 태어난 성별로 돌아갈 수많은 사람들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또 다른 데이터에 따르면 응답자의 44%가 지난 30일 동안에 "심각한 심리적 고통 serious mental or psychological stress"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응답자의 30%는 평생 노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응답자의 1/3 이상이 빈곤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아 과학회가 발표한 '성 정체성과 생물학적 성별이 일치 하지 않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 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 titled "Mental Health"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성전환자가 시술을 허용한다고 해도 정신 건강이 개선되지는 않는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건강한 마음 연구(The Healthy Minds Study)에 따르면 "성 소수자/동성애/트랜스젠더"로 분류된 대학생의 78%가 우울증, 불안, 섭식 장애, 자해 및 자살의 징후를 보인 반면 "성 소수자"가 아닌 응답자는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전역의 71개 대학 캠퍼스에서 65,21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8년 5개월간 미군 가족의 성전환자 청소년 3,754명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데이터 검토 결과, 성전환 호르몬이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정신과 약물 사용을 증가시키고 자살 생각/자살 시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ACP 이사회 멤버인 제인 앤더슨 박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청소년들이 정신 건강 지원이 필요하고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 자폐증 또는 기타 의학적 또는 심리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 이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입니다."라고 제인 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Protect Kids of CA ACT 2024 - 주민발의안을 상징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왜 이 주민발의안을 적극 지지하는지를 짧게 동영상에 담아놓은 것을 알립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로이 콜(Chloe Cole)인데, 지금부터 그녀의 체험담입니다.

"저에게는 가슴을 가로지르는 큰 두개의 흉터가 있습니다. 제 가슴의 큰 흉터는 매일 매일 저에게 상기시켜 주곤하지요.

나의 끔찍한 아픔의 경험을, 모두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저는 도살을 당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저는 성별 혼돈에 관해서 혹시 학교가 아닌 다른 데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의사에게 갔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저의 성별 혼돈에 대해 다음처럼 얘기하더군요.

"괜찮아. 너의 지금 그 느낌(반대 성별이 되는것이) 완전 정상(normal)인거야." 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에게는 선택은 오로지 2개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번째 옵션은 지금 너의 딸이 원하는 성전환을 해주지 않으면 죽은 딸을 당신들의 두팔에 안을 수 있고, 두 번째 옵션은 살아있는 아들을 두팔에 안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요. 겁에 질린 나의 엄마, 아빠는 눈물을 머금고 당시, 나의 성전환 수술을 돕기로 하셨습니다.



성전환을 위해, 겨우 십대인 나의 건강한 가슴절단까지하여, 지금은 가슴에 큰 흉터자국이 2개나 있어요. 근데, 의사에 게 물어보면,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그냥 흉터위에 바세린을 발라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저에게 피부 감염을 더 유발했습니다. 저는 더이상 카이저 병원에 대한 어떠한 신뢰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이미 한 그녀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어린 미성년자들이 그녀처럼 속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몸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학부모에게 알리게 하는 Protect Kids of CA ACT 2024를 강력히 endorse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도 Protect Kids of CA ACT 주민발의안에 꼭 서명하시고, 널리 알리셔서, 4월 13일까지 저희 TVNEXT의 주소로 청원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용은 TVNEXT.or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LA의 장로교회에 다니는 모교회 집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오셔서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안한다면서 말씀을 들을때는 아멘을 하라며 몇번이나 아멘 연습을 시키는데 약간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때 아멘 해야 한다는 성경적인 배경이 있는지요? 가르쳐 주십시오.

- 나성에서 송집사

### 영국과 유럽기독교의 몰락 이유

A: 좋은 질문입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사람들은 "IO(거룩한 지성 (sanctified intelligence))"가 높아야 똑똑한 사람이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 들면서 다니엘 콜먼이라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IO가 인생 성공에 공헌하는 비율은 많아야 20%에 불과하다"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예일대 심리학 교수인 "피터 셀로비"교수는 "Emotional Intelligence(감성지능-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정서적 지능)"을 말하면서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는 어린이가 자라서 학업 성적은 물론 대인관계도 좋고 인성도 뛰어난다"면서 IO 보다 EI를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EQ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란 말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감성의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뇌는 2가지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뇌와 오른쪽 뇌입니다. 왼쪽 뇌는 주로 IQ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조직적입니다. 그러나 우측뇌는 주로 EQ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예술적이고 정서적입니다. 좌측 뇌가 개발된 사람의 장점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상황판단이 빠르고 치밀하고 분석적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비판적이 되기 쉬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뛰어난데 다른 사람과의 협력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측 뇌가 개발된 사람은 감정 관리를 잘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며 협력하기를 잘합니다. 성격도 낙천적이고 사회 적응력 영어로 말하면 Flexibility(유연성)가 뛰어납니다. 설교를 들을때는 좌측 뇌를 분석을 하며 저 설교자의 메시지가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아 은혜가 되면 우측뇌를 사용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좋고 하나씩 영광이 됩니다. 장로교 교인들은 좌측 뇌가 발달했는데 설교들때는 우측 뇌를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장영준 목사님이 제게 한 말씀이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의 3가지 특성은 "아멘 잘하고 통성기도 소리가 뜨겁고 찬양이 좀 빠르다" 하셨는데 아직 그 기억이 납니다.

고후 1: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신령이 27 장을 보면 그리스도와 에발산에 12지파가 나누어 섰을 때에 레위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합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한 말씀 한말씀이 떨어질때마다 아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들면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자 백성들은 큰소리로" 아멘합니다. 그 부모를 경홀하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자 역시 큰소리로 백성들이 "아멘" 합니다. 아멘을 억지로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아멘 잘하는 교회는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앞에 아멘함으로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멘함으로 고후1장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두번째, 설교자의 말씀에 화답을 하는 것이 되므로 설교자와 청중들이 호흡을 맞추고 설교자도 힘을 얻습니다.



<p><b>갈보라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b>다민족교회</b>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물교회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 매주(목)오후 4:00-7:00 Tel:(773)821-1112 est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베: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845-1512, Fax:(215)8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p>	<p><b>벨렐교회</b>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후 8:00 영 아 베: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cty, MD 21042</p>	<p><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영 아 베: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6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b>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b>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초.중.고.대학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703)579-7576, www.koreanccc.org 25454 Gum Spring Road, Little Rock, AR 72112</p>	<p><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www.jesu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111</p>	<p><b>앵커리지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8</p>	<p><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452-0288, Fax:(215)45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b>킬린은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254)635-1824(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b>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03)941-4447, www.mccc.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b>타코마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www.laccna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사랑♡

Happy Valentine's Day! I love You! XO XO!

여기저기서 들리는 사랑의 언어들이 아름답다. 매년 2월 14일은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이 서로 달콤하고 로맨틱한 선물과 시간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날을 보낸다. 사

치스럽고 비싼 선물이 아니라라도 작은 카드와 꽃으로 평소 사랑하고 고마운 마음을 서로에게 전하는 날이다. 특별히 평소 마음에 생각하던 이성이 있는 이들은 이날 용기를 내어 수줍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는 사랑의 설렘과 속삭임이 가득한 날이

다. 크리스쿨에서도 이 주간에 부모님들께 전해드릴 예쁜 카드와 하트크래프트를 아트시간에 만들어 아이들 손에 들려 보낸다. 알록달록 종이와 크레용을 가지고 아트시간에 만드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for my Mommy and Daddy" 라고 재잘거리며 신나고 행복해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는 생각과 마음을 행동으로 전하는 모든 순간들이 빛이 나고 따뜻하다. 올해 Valentine's Day가 더욱 의미가 큰 것은 교회력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송고한 여정이 시작되는 날인 사순절을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과 같은 날이기 때문이다. 부활절은 유월절 계산법을 따르는데, 춘분(春分) 다음에 오는 첫 음력 15일(보름)이 지난 첫 주일이 부활절이 된다.

그 부활절로부터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수요일인데 그날이 사순절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이다. 그렇게 2024년 재의 수요일은 2월 14일이 되는 것이다. 사순절(Lent)은 길이(Length)를 의미하는 앵글로색슨어 'Lencten'에서 유래한 말로 봄의 기간을 나타내고 40일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공생애를 준비하신 기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사순절은 크리스천들이 다가올 부활절을 기대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을 통해 나의 삶과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시간들로 만들어 간다. 재의 수요일 예배 전에 교회에서 준비한 팬케이크 디너를 통해 원래는 화요일에 하는 큰 잔치의 식사인 말디 그라스 식사를 성도님들과 함께

했다.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되므로 전날은 화요일이 된다.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달콤한 빵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설탕과 효모를 다 써 버리고 식사에 가능한 모든 고기로 소비하며 절제와 회개의 절기인 사순절을 준비하는 의미이다. 공교롭게 발렌타인데이 저녁식사처럼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 더욱 특별하고 기쁘다며 성도님들과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성도님이 남편에게 오늘 재의 수요일에베에 십자가와 함께 하트모양도 이마에 그려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함께 웃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 놓는 재의 수요일 예배를 드

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사순절은 <전도>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셨다. 내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전도사역을 열심히 하라는 소망을 주셨다. 발렌타인데이 사랑은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누지 못함을 깊게 회개하게 하셨다. 2024년 사순절은 뜨겁게 사랑하며 보내려 한다. 일 년의 십일조 40일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드리고 싶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 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베드로전서 4:8 songjeo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존 파이퍼 목사 "예배에서 정치적 깃발 흔들기 안돼"

"정교분리를 존중하면서 성경적 진리에 기초해 기독교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적 깃발 흔들기는 기독교 예배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미국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가 예배 강단에서 정치적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을 우려하며 일침을 가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베들레헨 대학 총장인 존 파이퍼 목사는 최근 디자인어 링갓(Desiring God) 웹사이트에 게재된 팟캐스트 '존 목사에게 물어보세요'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권력에 진실을 말하는 것과 깃발을 흔들며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의 차이를 묻은 청취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파이퍼 목사는 "나쁜 정치적 깃발 흔들기"에 대해 "윤리적 원칙보다 정당에 대한 충성을 우선시하는 것, 도덕적 입장을 정치적 성향과 혼동하는 것, 사회 문제에 관한 정치적 해결책에 과도한 희망을 두는 것, 당파적 의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적 가르침을 오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이퍼 목사에 따르면 나쁜 정치적 깃발을 흔들기는 기독교 예배처럼 정치와 관련 없는 환경에서 당파적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의 전국대회에서 정치적 강령을 주장하는 깃발을 흔들 수 있지만, 기독교 예배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권력자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 방식을 지지했다. 그는 "진정한 기독교적 방식으로 권력에 진실을 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정교분리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사회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정부 권력을 이용해 종교적 신념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파이퍼 목사가 선거 시즌을 앞두고 정치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후보로 맞붙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태아 살해' '성전환' '사회주의적 지나친 접근'을 지지하는 정책을 옹호한 후보로 조 바이든을 암시하며 유죄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선 '회개하지 않는 성적 부도덕과 교만'의 죄를 언급했다.

2017년에는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레이크우드교회, 총격 1주 만에 재기... '총격범 위에서도 기도'

미국 유명 목회자인 조엘 오스틴 목사가 이끄는 레이크우드교회가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예배를 재개했다. 오스틴 목사는 이날 예배를 통해 "총격 사건이라는 트라우마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두려움은 믿음을 이길 수 없다"며 "끝내 믿음이 승리할 것을 믿으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유튜브와 폭스뉴스 등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레이크우드교회는 지난 18일 특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마이크를 잡은 오스틴 목사는 "일주일 전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며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감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예배를 앞둔 주일 오후 2시 레이크우드교회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격범은 자리에서 숨졌으며 총격범과 동반한 7세 남아와 57세 남성 2명이 총상을 입었다. 교회 측은 교인과 목회자들의 안전을 위해 총격 사건 이후 예배를 중단하기도 했다. 오스틴 목사와 교인들은 예배에서 총상을 입은 이들과 사망한 총격범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그는 "상처를 입은 소년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리에서 (총격으로) 상처를 입었다"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주님의 자비가 이들의 삶에 더해질 수 있도록, 사망한 이(총격범)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전했다. 한편 교회는 예배시간을 통해 총격 사건에 대응하고 교인들을 보호한 존 휘트마이어 휴스턴시장과 보안관들을 교회에 초대하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휘트마이어 시장은 "지난 비극 이후 하나님은 휴스턴시가 얼마나 단결돼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하나로 모으려는 목적을 갖고 계셨던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리스, 정교회 국가 중 첫 '동성혼' 합법화

그리스가 정교회 국가 가운데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서구권의 '성요업' 물결을 두고 교계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 의회는 최근 찬성 176표, 반대 76표, 기권 2표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그리스는 동성결혼 합법화와 더불어 이들의 자녀 입양도 허용했다. 자녀가 있는 동성 연인은 부모의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수 성향이 짙은 정교회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받아들인 것은 그리스가 처음이다. 이에 다른 정교회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교회는 그리스도교의 종파 가운데 하나로 전통적인 가족상을 옹호하며 동성애를 죄악시해 왔다. 그리스의 동성결혼 합법화는 지난해 6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연임에 성공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제안한 '국가 현대화' 공약 중 하나다. 이에 극우 정당인 스파르타당 의원들은 "법안이 지옥의 문을 열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무산됐다.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신학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 유럽과 미국은 신학이 무너진 뒤 동성애를 받아들이며 사회가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서구권의 흐름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유럽연합(EU)에서 동성 결혼을 법제화한 국가는 그리스를 포함해 16개국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37개국이다.



인근에 배수리가 있었다"며 "일부 사람들이 배수로에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AFP에 말했다. 앞서 미얀마 군정은 병력 보강을 위해 강제 징집에 나섰다. 이는 최근 소수 민족 무장단체의 거센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본다. 군정은 18~35세 남성과 18~27세 여성의 2년만 군 복무를 의무화한 병역법을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얀마 최대 명절인 4월 중순 신년 축제 이후부터 매달 5000명을 징집한다는 계획이다. 강제 징집을 피해 미얀마를 떠나려는 청년들이 늘며 여권사무소에는 밤샘 대기 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등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 의회는 최근 찬성 176표, 반대 76표, 기권 2표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그리스는 동성결혼 합법화와 더불어 이들의 자녀 입양도 허용했다. 자녀가 있는 동성 연인은 부모의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수 성향이 짙은 정교회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받아들인 것은 그리스가 처음이다. 이에 다른 정교회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교회는 그리스도교의 종파 가운데 하나로 전통적인 가족상을 옹호하며 동성애를 죄악시해 왔다.

그리스의 동성결혼 합법화는 지난해 6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연임에 성공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제안한 '국가 현대화' 공약 중 하나다. 이에 극우 정당인 스파르타당 의원들은 "법안이 지옥의 문을 열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무산됐다.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신학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 유럽과 미국은 신학이 무너진 뒤 동성애를 받아들이며 사회가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서구권의 흐름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유럽연합(EU)에서 동성 결혼을 법제화한 국가는 그리스를 포함해 16개국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37개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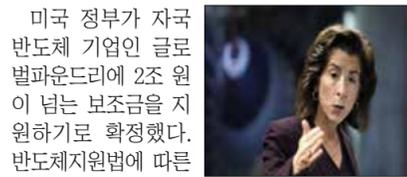
'강제징집 공포' 역소더스에...미얀마 여권사무소서 2명 압사



미얀마 군사정권의 강제 징집을 피해 나라를 떠나려는 사람들 수천명이 여권사무소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2명이 숨지는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현지 매체 미얀마나우와 AFP 통신은 19일(현지시간) 오전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의 여권 발급 사무소에 군중이 몰려 사고가 났다고 보도했다. 당시 여권사무소 앞에는 여권을 받으려는 사람 5000여명이 밤새도록 대기하고 있었다. 사무소가 문을 열자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으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 사고로 30대와 50대 여성이 압사했고, 1명은 인파에 밟혀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현장에 파견된 구조대는 "인파가 물렸던 곳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FOUNDRI에 2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첫 대규모 지원금 지급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금 결정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글로벌FOUNDRI의 뉴욕주·버몬트주 신규 설비 투자 및 증설을 위한 보조금 15억 달러(약 2조40억 원)와 16억 달러 규모 대출을 지원하는 예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협약은 실사를 거쳐 확정된다. 글로벌 FOUNDRI는 반도체 생산 능력을 3배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팬데믹을 거치며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섰다. 상황이 고동해야 했다"며 "이번 지원으로 그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반도체법 발효 뒤 세 번째 보조금 지급 사례지만 규모 면에서는 가장 크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영국 방위산업체 BAE시스템스(3500만 달러)와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1억 6200만 달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JS)은 "이번 상무부 보조금 지급 결정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애플, 노바, 테스라, 뉴욕, 오하이오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현금 지원의 시작"이라며 "인텔,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은 모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칩 업계 경영진은 다음 달 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전에 큰 결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 때 반도체법 성과를 설명하며 정책 홍보에 나설 예정인 만큼, 이를 계기로 구체적인 지원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美 자국 반도체 기업에 2조원 지원... 삼성도 수혜 기대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FOUNDRI에 2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첫 대규모 지원금 지급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금 결정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글로벌FOUNDRI의 뉴욕주·버몬트주 신규 설비 투자 및 증설을 위한 보조금 15억 달러(약 2조40억 원)와 16억 달러 규모 대출을 지원하는 예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협약은 실사를 거쳐 확정된다. 글로벌 FOUNDRI는 반도체 생산 능력을 3배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팬데믹을 거치며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섰다. 상황이 고동해야 했다"며 "이번 지원으로 그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반도체법 발효 뒤 세 번째 보조금 지급 사례지만 규모 면에서는 가장 크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영국 방위산업체 BAE시스템스(3500만 달러)와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1억 6200만 달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JS)은 "이번 상무부 보조금 지급 결정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애플, 노바, 테스라, 뉴욕, 오하이오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현금 지원의 시작"이라며 "인텔,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은 모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칩 업계 경영진은 다음 달 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전에 큰 결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 때 반도체법 성과를 설명하며 정책 홍보에 나설 예정인 만큼, 이를 계기로 구체적인 지원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팀 켈러가 알려주는...

(1면에서 계속)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기준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까지 기독교를 믿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공격적인 변증이 될까

켈러는 내용과 태도 면에서 모두 다 훌륭한 공격 모델을 보여주었다. 콘텐츠와 관련하여 켈러는 절대적 증거가 가능한 믿음 체계는 없지만, 그럼에도 다른 믿음 체계와의 비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가르쳤다. 평가를 위

해 그가 제시한 것은 세 가지 기준이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일관성 있는가(일관성의 기준)? 그 믿음이 우리의 지식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증거의 기준)? 그 믿음이 삶의 경험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생존의 기준)? 켈러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 체계가 의미, 도덕성, 진실, 정체성, 인권 등 기본이 되는 서구 문화의 가정과 욕구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성과 자원을 제대로 제공하는지 고려하라고 말했다. 믿음 체계가 성공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

지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 체계가 진실인지 알 수 없다. 켈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좋은 공격 모델을 만들었다. 그는 냉철한 정신, 최고의 경험 기술, 그리고 논쟁이 아니라 사람을 얻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를 수행했다. '성찰하는 경정'의 헌신적 옹호자인 켈러는 자신의 목적이 상대의 주장을 상대방보다 더 잘 설명해서 상대방 스스로가 그 사실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듣는 등 마는 등 하는 허수아비 전략을 거부했다. 대신 그는 상대의 주장이 가진 강점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켈러

는 상대가 이해받고 있다고 느낀 후에야 비로소 복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런 다음에 켈러는 프랜시스 웨퍼가 원조로서 선보인 전술을 사용했다. 웨퍼는 이를 "집에서 지붕을 떼어내는 것"이라고 불렀다. 웨퍼는 청중의 믿음을 비에 노출시켰다. 달리 말해서, 그건 일관성, 증거 및 생존 가능성에 대한 테스트였다. 웨퍼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집은 결코 제대로 된 생활이 가능한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돕고 싶었다.

기독교가 진리임을 원하도록 하라. 블레스 파스칼로부터 켈러가 배운 점은 기독교가 참되다고 믿기 전에 먼저 그것이 참되기를 원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바로 이 부분이 변증에 있어서 켈러의 전략을 공격적인 전략으로 이끈 주된 원인이었다. 누구나 핵심 믿음이 필요하고 또는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탐구하고 공공 유하며 진정으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일관성, 증거 및 생존 가능성의 기준으로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들은 기꺼이 현재 믿음을

의심하고 기독교를 더 매력적인 대안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래야만 기독교 진리가 가진 긍정적 증거를 계속해서 탐구할 것이고, 나아가서 방어적인 변증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열망까지 가질 것이다. 변증 게임에서 켈러는 열심히 그러나 공격하게 플레이했다. 그는 상대팀의 존경을 받는 그런 선수였고, 사람이 아닌 공을 다루는 선수였다. 켈러처럼 마냥 좋아 보이지만 하는 사람이 그토록 다양한 공격 전략을 가르쳐줄 줄이야,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by Ross Bowerman, TGC



# 개혁주의 입장에서 현대신학 비판 (3)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 I. 칼 바르트 (Karl Barth)와 신정통주의 (Neo-orthodoxy) (3)

### (3) 일반계시를 부정하는 바르트

요한 칼빈 (John Calvin)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신적 감각" (神的感覺) 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sensus divinitatis)을 주셨다. 이것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의식, 종교의 씨앗, 그리고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하는 요소가 있다. 이것이 곧 칼빈이 말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혹은 신적 감각이다. 바울은 롬 1:19-20에서 우리 속에 있는 신적 감각에 대해 말한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이 신적 감각이 부패되었고, 심히 왜곡되어졌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욱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롬 1:21-25).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신적 감각 (피조물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타락시켜,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기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합리적인 진리라고 왜곡시켰다.

죄가 우리의 이성적인 기능을 왜곡시켜, 우리의 지식까지 부패하게 만들었다 (noetic effect of sin). 그 결과 비진리를 진리로 생각하도록 만든다 (롬 1:21-25).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또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사용하게 만들었다. (롬 1:25-26)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성경의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시며, 성경의 하나님만이 창조주와 구속주와 섭리주 가 되심을 믿게 되게,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고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어 "신적 감각"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을 믿게 된다.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일반계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를 주로 인간의 종교적 체험에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성경을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진 깊은 신(神) 의식과 그들의 종교적 체험을 기록한 것으로 보았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계시를 부인하는 일이다.

이러한 자유주의 관점에 반대하여 바르트는 특별 계시만을 강조했다. 바르트는 자연 계시를 반박하면서, 자연에 있는 것이든, 인간의 의식에 있는 것이든, 아니면 역사적 사건의 과정에 있는 것이든, 피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극단으로 나아갔다.

### (4) 존재의 유비 (analogia entis)와 신앙의 유비 (analogia fidei)

바르트는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von Aquin)의 "존재 유비"를 거부

하고 "신앙의 유비"를 주장했다. 유비(類比, analogy)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설명하여야 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유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부여된 계시 진리와 자연에 근거한 이성적 진리 (일반계시)가 모순되지 않고, 상호 보충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퀴나스는 유한한 인식능력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유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역동적인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유비 (analogy)를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는 엄청난 차이 (비유사성)를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하여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이다. 볼 수 없는 존재를 인간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의미이다. 이것을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의 유비 (analogia entis)" 라고 부른다.

그러나 바르트는 "유한은 무한을 포함하지 (이해하지) 못한다" (Finitum non capax infinitum) 라는 말을 통해 아퀴나스의 "존재의 유비"를 반대한다. 바르트는 "존재의 유비"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한다면 궁극적으로 그것은 인간 존재의 연장일 뿐이며, 결코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인간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간이 경험하는 세상의 언어로 설명한다면 (존재의 유비), 그것은 인간의 언어일 뿐, 결코 참된 하나님의 묘사가 아니라고 했고,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의 우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기 체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것을 믿고, 섬긴다면 그것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다.

바르트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을 "신앙의 유비" (analogia fidei) 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며, 오직 이러한 인간의 언어 (아버지와 같은)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다른 (Wholly Other) 하나님의 세계에 도약 (leap)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르트가 주장한 "신앙의 유비 (analogia fidei)" 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만남인데, 하나님의 계시는 신비적이기 때문에, 명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만남은 주관적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ncounters with Jesus Christ, the revelation of God, is but mystical, not something describable propositionally, for the encounter is subjective and ineffable).

쇠렌 키에르케고르 (Søren Kierkegaard)의 전문가 철학자이며, 덴마크어로 된 키에르케고르 책들을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한 데이비드 스웬슨 (David Ferdinand Swenson, 1876-1940)은 1916년 "키에르케고르의 반지성주의(The Anti-Intellectualism of Kierkegaard)"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H2에 O를 더하면 물이 되고, 물이 도약하여 얼음이 된다. 운동에서 정지로 또는 그 반대로 변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전환이다. 이것이 제노의 변증법의 기본 원리(the basic principle of Zeno's dialectic)이다. 따라서 그것은 초월적이고, 비합리적이며, 그 존재의 출현은 도약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 (It is therefore transcendent and non-rational, and its coming into existence can only be apprehended as a leap)."

바르트는 실존주의 철학 (특히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는 객관적, 혹은 명제적이 될 수 없고 실존적인 만남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바르트는 바르트를 비판하면서 성경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

이며, 하나님의 계시는 명제적으로 (propositionally)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진리가 현상계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상계를 벗어난, 본체적인 세계 (noumena: 하나님, 영혼, 영적인 세계와 같은 것들)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오직 신앙의 도약 (a leap of faith)으로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것이 바르트의 "신앙의 유비"(analogia fidei)이다.

바르트는 신앙의 세계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고,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고, 오직 신앙의 유비로 신앙의 도약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바르트는 성경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증언 (witness) 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바르트의 의하면, "계시는 마치 번개가 치는 것과 같아서, 번개를 맞아 쪼개진 나무는 보이지만, 쪼개진 나무 그 자체가 번개가 아닌 것처럼 성경이 계시가 아니다." 그리고 "계시는 마치 화산의 폭발과 같아서 화산 폭발 후에 화산 폭발로 인한 분화구는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화산 폭발은 아닌 것과 같다" 하면서,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 그 말이 합당한 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성경의 언어는 무엇인가? 개혁주의 입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개혁주의 신학자 반틸에 의하면 하나님의 지식은 본래적인 지식이며 (original), 인간의 지식은 유비적이다 (analogical). 여기에서 바르트의 신앙의 유비 (analogy of faith) 혹은 신앙의 도약 (leap of faith)라는 말과 반틸의 "인간의 지식은 유비적이다 (analogy)" 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KHL0206@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대안)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3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23) 813-448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F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714)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 예배: 오후 1:20 영어권 (중·고·대) 캠퍼스(월-토)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 210-683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310)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j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수-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 behel@bhc.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b>세계사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 325-78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세계선교교회</b> 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매일 저녁 7:00 수요일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 388-1927 / www.wmcc.org / worldmissionchurch27@gmail.com 3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b>살비치 사랑교회</b> (Seal Beach Se-Ra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66 살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	<b>열매교회</b>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일 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8, Cel: (213) 215-82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b>엘피스사역원</b>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선교회(복음선교회)총무)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고령화 노인 여성 리더 사역: 1. 복음선교 2. 가정사역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사역 Tel: (212) 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2:00 금요성경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일일예배: 오후 1:30(수-일), 오후 7:30 은혜사랑교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 (714) 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c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b>좋은마음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영/청년): 오전 11:45 송-고등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 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전 2:00(본당) 수-일 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jo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평강교회</b> 담임목사: 송규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1:00 TE-테-동요찬양(수-일): 오전 9:30 화-목 3.3기도회: 매일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9:00 TE-성경을 읽는(금): 오후 7: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213-38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센터빌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의 전도 방법(Jesus' Evangelism Method)

예수님은 전도의 선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세상에 오셨습니까(막 1:38).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직접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자로 파송하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노방 전도, 축호전도, 고구마 전도 방법이 있고, 진돗개 전도 방법도 있고, 그 외에 더 많은 전도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전도 방법중에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모든 전도법의 원조요, 원천입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자(Evangelize to Those who are Close First)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합니다(마10:5,6). 예수님께서 전도의 범위와 순서를 정해주셨습니다. 사실 전도대상은 전 인류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전도 순서는 먼저 예루살렘, 그 다음이 온 유대, 그 다음이 사마리아, 그 다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입니다.(행 1: 8) 전도는 가까운 동족부터 전도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형제, 골육의 친척부터 전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전도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구원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전도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마10: 7)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원래 메시지였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마 4:17)

복음(福音)의 핵심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말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말했고 이제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천국을 말해야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길은 찾는 게 아니라 묻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만이 회

개하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14: 6)입니다.

전도하도록 능력을 주신다(Power Given to Those who Evangelize)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해 영적 무기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마10: 8)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전도자를 부르셔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마10: 1) 능력을 주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행 1: 8), (마28:20) 전도하는 메트로를 통하여 앓은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행 3: 6-8). 전도하는 사도바울을 통해서도 갖가지 권능이 나타났습니다(행19:11,12).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도 갖가지 권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 전도현장에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혼구원의 열정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하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Gives All Necessities to Those who Evangelize)

전도 할 때나 전도여행을 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바라라는 것입니다(마10: 9,10).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에게 필요한 비용과 먹을 것이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고전 9: 7). 전도자는 복음이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걸식 전도 방법의 정진입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공급해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협력자를 찾으라(Find a Coagent)

전도하러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를 찾아 그 가정을 중심으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전도를 할 때 사도바

울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찾아내었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행16:14).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협력자를 예비해두시고 붙여주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마10:11)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라는 말씀은 "전도 대상자"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VIP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very important people, 아주 존귀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평안과 축복을 빌라(Pray for Peace and Blessing)

전도대상자에게 평안과 축복을 빌어 줍니다(마10:12).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사용하는 "살롬"(salm)을 말합니다. "살롬"(salm)의 뜻은 마음의 평안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평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영육간의 축복을 골고루 갖춘 상태를 뜻합니다."

전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그 대로 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10:13). 남을 축복하면 남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그 축복이 돌아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VIP를 만나면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VIP를 축복해 보세요. 그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옥토와 같이 되어서 믿음의 싹이 틀 것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십시오. 협력자와 VIP를 찾으십시오. 천국을 말하십시오. 그들의 필요를 예수 이름으로 채워주십시오. 평안과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바라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아처럼 온 가족을 구원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접촉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남은 생애 동안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한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26) 골이 깊으면 산도 높아...

모든 사역에 다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한부모 사역에 특별히 참가자들을 포함해 인도자의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더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던 이유도 감당이 어려워 질 때 해결 방안을 찾다가도 아주 기분으로 돌아가 이 사역의 존재여부에 대해 새삼스럽게 묻게 됩니다.

이 사역의 필요성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첫째는 출석교회를 가진 참가자들이 있는 반면, 남자분들 중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싱글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공동체인 만큼 서로 친근감을 느낄 수 있고 그만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좀더 기쁨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해 볼 때 먼저 인도자의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인도자들도 역시 이혼이나 사별의 삶을 살아온 만큼 신앙으로도 결코 회복되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가 있어 작은 돌 뿌리에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우선 참가자와 부딪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석자들 중 특히 여성들은, 자의로 이혼했거나 타의로 이혼했거나 상관없이 홀로 자녀를 키우며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민자의 삶을 살아온 만큼 개성이 뚜렷하고, 인지 성격이 강해서 인지 의외의 언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쉽지 않을지라도 내가 받은 용서의 가치를 되새기며 용서하고자 할 뿐 아니라 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2R로 forgive, forget 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행여라도 '십삼함은 물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이 밖에, 온다던 사람들이 특별한 사유나 연락 없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는 데 특별히 이박살일 수있회 갈 경우 인원에 맞춰 물자를 준비해 간만큼 손실과 더불어 여러 생각으로 인해 낙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라도 참석하신 분들과의 대화에 더 집중하도록 마련된 시간이라고 감사하며 모임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도자는 내 취향에 맞는 사역을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 중 몇 분이, "백세세상이 온다는데 어찌 그 오랜 기간 혼자 살겠냐?"며 동반자를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릴 때, "주님 한번 바라보고 살기도 바쁘데..." 라고 하며 행여라도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다른 이들과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전문 사역자나 평신도 사역자나에 관계없이 소명을 받고 시작한 경우와는 달리, 인도자가 '내 이름을 바탕으로 같은 어려움의 사람들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접한다면 더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입니다. 한부모사역에 관한 확실한 소명을 받았을 경우,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제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신명기 10:18)'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짐이 없는 자를 나그네라고 말하지만 혼자되어 안정되지 못한 싱글 남자분들을 나그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는 말처럼 하나님만 바라며 그들과 울고 웃을 때 힘든 만큼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뿐 아니라 하늘의 상도 클 것이라고 믿으며 한부모사역 인도자들께서 힘차게 전진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hyojungyoo2@yahoo.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sections for '동부(NY,NJ)교회' and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하늘 우리러 사는 삶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게 살아가는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을 우리러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을 우리러보고 사셨습니다. 스테반은 예수님에게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행7:55에 보면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스테반이 죽는 순간까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하늘을 우리러 보았기 때문입

니다. 우리가 하늘 우리러 믿음으로 사는 삶은 바로 내 양심에 부끄럼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에스더4:13에 보면 유다백성들이 하만의 악한계락에 모두 죽게 된 위기 가운데 모르드개가 조카 에스더에게 "너는 아하수에로왕에게 나아가 죽게 된 백성을 구하라!"는 말을 듣고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말을 전하자 모르드개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것이오 너와 네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아느냐?"는 이 말에 양심이 찢린 에스더는 사흘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하고 왕에게 나아가 온 유대인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의로운 양심을 따라 살아가

는 삶이 바로 하늘 우리러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는 "아동보호법 주민발의안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의 열기가 뜨겁게 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아이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성전환수술을 아이들이 원하면 주정부 돈으로 할수 있고 그것을 부모라해도 반대하면 처벌하는 법이 주지사에 의해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을 막는길은 올해 11월 선거에 주민발의안으로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 마티네즈(Abigail Martinez)란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딸이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 학교에서 게임해서 어린 딸이 성전환수술을 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왔지만, 딸은 끝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에린 프라이데이(Erin Friday)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성소수자들을 위해 강력한 지

지자로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지했던 법 때문에 딸이 성전환수술을 한다고 할 때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녀는 피눈물을 흘리며 엄청난 돈을 쓰고 성전환 수술을 한 딸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후 그녀는 직장도 그만두고 우울증에 걸린 딸아이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린 변호사는 이 일후, 아동보호를 위한 주민발의안 서명운동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주위에 이런 피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 줄것입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악법을 바꾸기 위해 근처 마켓으로 나가서 부스를 설치하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4월10일까지 70만명 한인들은 10%인 7만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뛰고 있습니다. 저희교회 권사님 한분이 마켓에서 혼자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한 남자가 오기에 서명

을 요구했더니 자기는 이런 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냉정하게 거절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서명을 해야 할 이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여주니까 "난 gay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은 막아야한다"고 하면서 서명을 흔쾌히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gay지만 그들도 분노하는 일이 성전환수술인데 우리가 이때에 노잡잡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과 고통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주어진 것입니다. 사명이 있어 그곳에 여러분을 서있게 하신 것입니다. 힘들다고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선 자리에서 사명의 십자가 지고 진리와 의를 증거 하여 하나님나라를 세워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요, 영광스런 인생인 것입니다.

songpkak@hotmail.com

제 10차 오렌지카운티 기관,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

"믿음으로 하나되어 모두가 선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자"

오렌지카운티 지역 기독교교회협의회(이사장 민경엽목사/회장 박재만 목사), 장로협의회(회장 배기호 장로), 목사회(회장 이원석 목사), 한인여성목사회(회장 김선옥 목사), 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공동 주최로 열린 '제 10차 오렌지카운티 기관,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가 17일(토) 오전 7시 2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OC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민경엽 목사 환영사, 국민의례, 애국가(한국, 미국) 소프라노 지경, 배기호 장로 기도, 특송 지명현 목사, 설교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로 진행됐다.

진유철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선한 변화의 주인공이다'(갈 5:13-15)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씀이다. 교회를 통해 흘러나

는 사랑이 이 땅에 선한 열매를 이룰 수 있고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행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되어 모두가 선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참석자 모두가 △ 나라와 민족을 위해(인도 박재만 목사), △ 기관 단체장 및 정치와 선거를 위해(인도 한기홍 목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함께 자리한 김영환 목사(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이 기도가 공동체와 동포사회를 변화 시키고 한미관계가 튼튼해져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기도가 되고 나아가 세계를 위한 기도가 되기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 외에도 미셀스틸박 의원(45지구 연방의원), 영킴 의원(40지구 연방의원), 조봉남 장로(OC한인회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은혜한인교회에서 준비한 27명의 선교사 자녀에게 장

학금을 전달했으며 윤성원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친 뒤 은혜교회에서 준비한 조찬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무궁화 합창단이 찬양을 선사했으며 특별 연설을 통해 Erin Friday 변호사(CA 자녀지킴이 주민 청원서 공동 발의자 Our Duty & Do No Harm 캘리포니아 대표)가 자신의 딸의 상황을 진솔하게 고백하며 주민 발의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사라김(TVNEXT.org 공동 대표)과 강순영 목사, 양경선 목사가 주민발의안의 작성 요령과 진행사항을 설명했으며 김기동 목사(OC교협 중경회장)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현재 한인 교계는 아동보호법 주민발의안 청원서 서명운동(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청원서)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서명운동은 자녀를 보호할 권리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기에 CA지역 교계와 교회, 단체들을 통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자세한 것은 TVNEXT.org에서 볼 수 있다.



디모데목회훈련원가 주최한 2024 LA 목회자세미나에서 이용걸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2024, LA 목회자세미나

"바울의 겸손함, 눈물, 인내, 섬김의 자세 본받아야"

디모데목회훈련원(대표 이용걸 목사)이 주최한 2024 LA 목회자세미나가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주제로 19일(월)과 20일(화) 양일간 베델교회(담임 김한오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본 훈련원 대표인 이용걸 목사가 맡았다. 19일(월)에 열린 첫날 세미나의 첫 번째 강의를 바울의 목회 철학(행 20:17-38)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이용걸 목사는 "신학교교육에서 부족한 점은 현장목회에 대한 교육이다.

많은 경우 현장목회 경험이 부족한 교수가 실천신학 과목을 가르치기에 졸업 후 현장목회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담임목회 경험이 풍부한 선배 목회자들과 원로들로부터 목회경험을 듣는 것은 매우 큰 자산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 목사는 "선배 목회자들의 장점과 자신의 장점과 잘 접목한다면 목회 사역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한국이나 타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났던 목회 방법은 검증절차 없이 바로 적용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자신의 목회현장에 잘 맞는지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담임목회를 하는데 있어서 선배 목회자들이 했던 방식을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민교회의 경우 바람직한 벤치마킹은 성경에서 기록된 사역에서 찾아야 한다. 교회성장의 비결과 목회철학은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다. 그리고 목회는 자신에게 주신 은사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목회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야 한다.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 인재를 징계할 때에도 사랑으로 해야 한다. 바울은 사랑으로 사역했으며 시작과 마침이 변함없이 있었으며 양심에 어긋남이 없이 사역했고 바울은 겸손함, 눈물, 인내, 섬김의 자세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날 두 번째 강의는 박안수 장로가 강사로 나서 전도세미나를 진행했으며 세 번째 강의는 '바울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용걸 목사가 강의했다. 한편 둘째 날 강의는 이용걸 목사가 '레위기에서 본 목회자', '설교 작성과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으며 박안수 장로가 '새 가족과 목양사역'을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OC지역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우호 목사와의 후보 지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67지역 후보 이우호 목사

"법안 내용, 하나님 법에 위배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캘리포니아 67지역 하원에 출마하는 이우호 후보의 출정식이 지난 3일(토) 벨가든 궁극재단 기도원에서 열렸다. 이날 출정식은 오는 3월5일에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이우호 후보가 선전하여 11월 본선에 진출을 기원하는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캘리포니아 67지역은 지난해 유수현 후보가 출마했던 곳으로 한인들도

많이 사는 세리토스, 라팔마, 부에나파크, 플러튼 일부, 사이프레스, 웨스트 에나하임, 디즈니랜드 지역구이다. 현역은 샤론 퀸 실바 의원(민주당)이다. 이우호 후보는 "미국과 한국이 성경적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일선에 나가 부르짖지 못함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했다."라고 출

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목사는 "교육문제만 아니라 근래에 2,600개의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지난해에만 약 1,000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특별히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은 물론 어린이들의 부모 동의 없이 자율적으로 성전환이 가능하게 하여 자라는 다음세대의 정체체정도 혼잡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부터 부모의 양육의 권리까지 빼앗아가려는 법안들이 만들어진 것은 매우 심각하다"며 "누군가가 이 법안 내용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법에 위배되는지 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이 법안들은 누구나 지켜야 하고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자녀들도 후손들도 모두 지켜야 하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우호 후보는 지난 2019년 오렌지카운티로 이주한 이 목사는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www.votejacoble.com 자세한 것은 (714) 955-9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무교'는 항상 우리...

(10면으로 계속)

나의 논제가 정확하다면 그러니까 과거에 상당수의 미국인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이유가 단지 유행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라면, 오늘날 무교의 급부상도 철저히 무종교성의 증가 때문이라고 보다는 항상 존재했던 무언가가 드러난 결과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일부 미국인들의 경우 이전에 유행했던 특정 믿음을 더 유행하는 새로운 믿음으로 바꿨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과 함께 상당한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더 많은 위선을 통한 더 나은 도덕성

먼저 도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미국에서 기독교가 유행했을 때 기독교 도덕은 매우 높은 지위를 차지했다. 그건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다. 물론, 기독교 도덕의 상당 부분, 즉, 인종 평등의 경우에 미국의 역사 전반에 걸쳐 철저히 무시받았다. 그러나 미국 여성의 초기 기독교의 도덕 원칙(특히 성과 관련된 원칙)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매우 높게 가치를 인정받았고, 그 결과 도덕 낙점받았으나 죄악된 충동을 억제하는 데에까지 많은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심계명, 예언서, 산상수훈, 바울서신은 기독교 신앙에 완전히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게까지도 널리 인정되는 윤리적 행동에 대한 명확한 틀을 제공했다. 기독교 도덕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존경심은 특정 행동을 억제하고 성경적 원칙에 기초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대로,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 도덕의 지위가 쇠퇴함에 따라 죄악된 행동에 대한 외부 제한도 그에 상응하여 침식되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부패한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28절)을 허용한 사회에 생길 비극이 무엇 일지를 경고했다. 오늘날 우리는 그 경고가 현실이 된 사회를 목격하고 있다. 기독교 윤리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가 사라지는 순간, 개인은 한때 통제되었던 충동에 호기심을 느끼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시스템이 유지되었던 것은 많은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위선자였기 때문이다. 위선은 자신이 실천하지 않는 도덕 표준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더 이상 기독교 이전이나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넘치는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 아예 무교인 사람들이 기독교의 도덕을 사용해서 충분히 도덕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는 전례없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염소 판별기

다행히도 심각한 도전과 함께 기회도 찾아온다. 이전에 문화적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무교가 됨으로써 누가 "염소"인지를 확실하게 가릴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참된 신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한다(마 7:21-23).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마 25:31-33).

미래에 염소들은 예수님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염소 판별기"가 1776년에 발명되었다고 상상해 보라. 누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이고, 누가 "염소"인지 단박에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가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데에 유리한 유행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심지어 도덕적인 삶도 살았지만, 그들은 사실상 "거품나지" 않은 염소였던 것이다(요 3:3). 만약에 그런 염소 판별기가 있었다면, 기독교는 한참 전에 유행과 과제가 먼 종교가 되었을 것이고, 미국에서 도덕성의 쇠퇴는 수십 년 더 일찍 시작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역사의 매 단계에서 유행에 이끌려 그리스도인 행세를 한 염소를 식별하고

(10면으로 계속)

# 동부교계 기사관

**뉴욕실버선교회, 튀르키예 지진 난민 선교 지원 자금 모금**  
 뉴욕실버선교회는 2월 25일(주일) 오후 4시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튀르키예 지진 난민 선교 지원 자금 모금 연주회를 개최한다. 첼리스트 문태국, 피아노 노린캐시디-플레라가 출연한다.

▲ 문의: 516-387-9940

**뉴욕실버선교학교 2024 봄학기 개강**  
 뉴욕실버선교학교(회장 김재열 목사)는 제 37기 2024 봄학기 2월 26일(월)부터 4월 29일(월)까지 10주간 뉴욕갯세마네교회(담임 이지음 목사)에서 개최한다. 대상은 선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며 등록비는 100불이다.

▲ 문의: 김경열목사 917-963-9356, 이형근 장로 646-220-8222

**뉴저지 새로운교회 한국학교 봄학기 등록**  
 뉴저지 새로운교회(담임 김도완 목사)는 3월 3일(주일)부터 6월 2일(주일)까지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12주동안 2024년 봄학기 한국학교를 연다. 대상은 Kinder부터 8학년까지이다. 일반등록은 2월 18일부터 개강일 때까지이다.

▲ 문의: 디렉터 권미영 umlaut92@gmail.com

**뉴브런스윅신학교 언더우드 세계선교센터 후원모금음악회**  
 뉴브런스윅신학교는 3월 10일(주일) 오후 7시에 뉴저지초대교회(담임 박찬섭 목사)에서 언더우드 세계선교센터 후원모금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한다.

▲ 문의: 201-965-7759, 845-553-0035

**목회적돌봄선교센터, 2024 봄 마음과 관계 웨비나 개최**  
 목회적돌봄선교센터는 2024년 봄 마음과 관계 세미나를 '어릴적 외상 꼭 나쁜 것일까?'라는 주제로 3월 8일(금)에 동영상으로 업로드된다. <https://www.youtube.com/@pastoral-caremissioncenter7393>

▲ 문의: mokdolsun@gmail.com

**메릴랜드 기독합창단원 모집**  
 메릴랜드기독합창단에서 합창단원 (소프라노 5명, 알토 10명, 테너 10명, 베이스 10명)을 모집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빌립보교회에서 연습하며 교회음악 세미나 및 영성 훈련, 합창 발전세미나, 정기연주회 및 초청연주회를 진행한다. 마감일은 3월 31일(주일)까지이다.

▲ 문의: marylandchoir@gmail.com 301-648-2522

**미주한인회, 청소년 문화탐방 학생모집**  
 미주한인회는 미국에서 성장하는 한인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뿌리, 한국의 역사, 한국의 얼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문화 탐방 10박 8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있다. 선착순 50명에게 여행경비 일부를 지원하며 6월 17일(월) 오후 8시 아씨 플라자 앞에서 출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https://philahanin.com/2024/01/27/103518/> 참고하면 된다.

▲ 문의: 주디킴 267-261-1277

**뉴욕한인봉사센터 '이훈 박사 장학생' 모집**  
 뉴욕한인봉사센터(KCS)는 12학년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훈 박사 장학생'을 모집한다. 이번 장학생은 총 3명에게 각각 5,000달러씩 전달된다. 신청 대상은 현재 12학년인 한인 학생 중 올 가을학기 4년제 대학 입학 예정이고 뉴욕주 내 거주자여야 한다. 또 고교 학점 평균 3.0 이상, 봉사활동 및 리더십 함양 관련 활동 증명 가능 및 가구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5월 24일까지이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장학생 신청 홈페이지 <https://kcsny.org/scholarship/> 를 참고하면 된다.

▲ 문의 718-939-6137

## 교회성장 심리치유 목회상담 전도 컨퍼런스

(사)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한국교회치유성장연구원(최귀석 목사)은 2월 15일(목) 오후 2시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 사무)에서 교회성장 심리치유 목회상담 전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정관호 목사(뉴욕목사회 회장)는 "이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통해 각자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개인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강의를 통해 각자가 귀중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귀석 목사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경을 통독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무의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관된 삶이 중요하다. 내 뜻대로 살다가 자신도 모르게 천국을 포기할 수 있다"며 "누구든지 여기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수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치유시키고 말씀을 선포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미 마음 밭을 기경시켜놓고 말씀을 심어놓고 거기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했다"며 "내가 전한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잘

심어져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치유한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영적 파위가 실린 치유 설교를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막막해하는 분들,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목회성장을 가로막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목회자 부부의 갈등이나 자녀들의 탈선과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에 처한 분들을 위해 세미나만으로는 마음의 치유와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어려우니 해당 분야에 집중한 강의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30년 동안 배운 치유와 회복과 교회 성장과 전도에 대한 포괄적인 모든 것들을 3일 동안 에기스를 전해주시 3일만 동고동락하자"고 권했다. 본격적인 강의는 2월 19일(월)부터 2월 21일(수)까지 진행됐다.

(사)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은 1995년에 설립되어 1:1 내적치유법, 인간관계 갈등회복 훈련, 부부갈등 치유를 통하여 상처 입은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있는 상담연구원이다.

(홍현숙 기자)



교회성장 심리치유목회 상담 전도 컨퍼런스 사진

**1만 탈북기독인 200여명의 탈북사역자 80여명의 탈북신학생 90여개의 탈북민교회**

선교의 열매

정형신 목사가 탈북민교회의 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 “탈북민교회의 현황” 2024 뉴저지연합 북한선교집회

북한선교의 목적은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2024 뉴저지연합 북한선교 집회가 2월 17일(토)부터 20일(화)까지 뉴저지에서 열렸다. 17일(금) 저녁에 뉴저지동산교회(담임 윤명호 목사)에서는 북한선교대회 강사인 정형신 목사가(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탈북민교회의 현황"에 대해 보고를 했다.

정형신 목사는 85%가 북한 출신 목회자들로 구성된 '북한기독교총연합회'를 소개하고, 탈북민교회의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를 나누었다. 그리고 "탈북민 교회, 탈북민 목회자, 탈북민 성도 -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조국 교회를 주신 북한선교의 가장 실제적이고 분명한 열매"라고 강조했다.

정 목사는 "북한선교의 목적은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북한에 세워질 교회의 전 단계로 남한 땅에서 북한 사람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바로 탈북민교회이다. 지금 한국에는 탈북민교회, 탈북민교회 목회자, 탈북민 부교역자, 탈북신학생들이 '북한기독교총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다. 구성원의 85%가 북한출신 목회자들이다. 현재 50여 개의 탈북민교회와 120여 명의 탈북사역자들이 모여서 북한선교의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국내외 교회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북한 땅에 세워질 교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교협, 제1차 부활절준비기도회 사진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어 교회가 교회사인 교회로...”

### 뉴욕교협, 제1차 부활절 준비 기도회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태규 목사)는 2월 19일(월) 오전 10시30분 뉴욕베데스다교회(담임 김원기 목사)에서 제 1차 부활절 준비 기도회를 열었다.

박마이클 목사는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행 3:6-10)는 제 목을 통해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였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필요하다. 세상이 관용과 용납 아래 동성애자들을 환영하는 시대에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잃어 버려서는 안된다. 관용과 용납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교회가 교회사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심기도는 부활절 연합세례 예배를 위하여 이조엔 권사(이사장), 조국 한국과 미국의 부흥발전을 위하여 임지윤 목사(어린이분과위원장), 세계할렐루야대회와 교협발전을 위하여 양은식 목사(총무) 순으로 인도한 뒤 모두 일어나 죽은 영혼들, 교회들, 뉴욕도시, 온세계를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

명과 기운 충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박준열 목사(부활절 준비위원장)가 마무리기도를 했다.

이날 박태규 목사는 "피아노를 반주할 줄 모르나 아는 곡만 나와 반주를 했으니 오해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겸손한 마음을 전하며 피아노 연주와 함께 '내주어 뜻대로'를 찬양했다. 또한 박목사는 "교협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가지 좋지않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 임원들에게 힘주셔서 더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는다"고 인사했다.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의 진행에 대해 총무 양은식 목사는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며, 합류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지역별로 개별 예배로 드리는 교회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는 3월 31일(주일) 새벽 6시에 드린다.

제 2차 부활절 준비기도회는 2월 29일(목) 오전 10시30분 뉴욕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열린다.

(홍현숙 기자)

## ‘무교’는 항상 우리...

(9면에서 계속)

그들을 진짜 믿는 양과 분리할 수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다는 건 사실상 시종일관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밥 존슨은 그 문제를 이렇게 지적한다. "가장 확실한 전도 대상자는 언제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

종교 정체성의 새로운 변화는 전도를 위한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문화적 기독교에서 훨씬 더 정직한 자기 정체성이라는 무교로의 전환은 복음을 나누기 위한 보다 명확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종교에 대한 불신이나 무관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이며, 그들이 잠재적으로 문화적 가식의 장벽 없이 복음의 진리를 듣는 데 더 쉽게 마음을 열도록 하는 기회이다.

이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마 13:3-9)에 나오는 상황과 비슷하다. 씨 뿌리는 사람은 다양한 땅에 씨앗을 뿌리는데, 그 결과는 복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다. 어떤 씨앗은 길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과 또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다. 그리고 일부는 좋은 땅에 심겨진다. 이 비유에서 무교는 문화적 기독교라는 가시가 제거된 땅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지 않는다. 그들의 땅은 이제 복음이 역사할 준비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임무는 복음의 씨앗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뿌리고, 그중 일부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 맺기를 믿는 것이다. 동시에 무교의 부상은 교회 내 성장과 개혁을 요구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문화적 형태의 기독교를 장려하는가? 우리 교회가 삶에서 역사하는 복음의 변혁적인 힘을 드러내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패권을 따르려는 압력에 굴복하고 있는가? 무교의 증가는 교회가 제자를 삼는 핵심 사명(마 28:19-20)을 다시 다짐하고, 기독교의 믿음이 단지 유행하는 부속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관계임을 확실하도록 하는 기회이다.

무교의 증가를 보며 실망해서도 또 현재에 안주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우리의 복음 전도 노력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전이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믿는 신앙을 삶에서 제대로 실천하겠다는 자극을 받아야 한다. 더 신실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더 큰 열매를 주실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고전 3:6),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와 진리의 능력을 삶으로 보여주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무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뿜는 "특별히 관심 가는 종교가 없음"이라는 대답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빌 2:9)을 믿음"으로 바뀌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by Joe Carter , TGC

**피종진 목사 2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010-5255-7777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Godbless3377@gmail.com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1(목) 저녁 2(금)~ 3(토) 인천 물뚝동산교회(김천영 목사) 010-3721-4316  
 천안 위대한약속교회(윤재민 목사) 010-3254-0691  
 주최: 솔로몬 지도자 협의회

6(화) 저녁 대구 주강교회(조영림 목사) 010-8908-1487  
 주최: 그루터기 부흥사회(대표회장 정태윤 목사) 010-2296-0675  
 송추 반석기도원(원장 고관능 목사) 010-2391-3004  
 서울 강남순종교회(오승준 목사) 010-3926-8434  
 창원 은혜교회(미은혜 목사) 010-4586-8642 / 행정 김반석 목사 010-2083-8644

7(수) 오후 8(목) 서울 강림교회(조경숙 목사) 010-8222-1992  
 서울기독교 교육방송국(사장 김규임 목사) 010-4242-5022  
 한국기독교회관 1308 주최: 민족복음화운동협의회(대표총재 우영순 목사, 대표회장 박연복 목사, 준비위원장 임동철 목사) 010-7407-9958

11(주) 오후 15(목) 오후 16(금) 오전 구리 성민중앙교회(강영준 목사) 010-9260-1091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870-5642  
 대전 북부제일교회(김재홍 목사) 010-9068-9197  
 국제선교교회(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템트메이커선교회 강남센터 3층(대표회장 남보성 목사) 010-7220-0733  
 용산 비전센터 기도성회(김사명 목사) 010-3621-3383 신세기한강빌딩 5층  
 군산 아름다운교회(최영명 목사) 010-2953-2996  
 주최: 그루터기 부흥사회(대표회장 정태윤 목사) 010-2296-0675  
 서울 강남반석교회(김사명 목사) 010-8331-3431  
 서울 은진원림국제교육원(총장 장남철 박사) 010-2252-0675

23(금) 저녁 24(토) 오전

25(주일) 밤 26(월) 27(화) 28(수) 29(목) 제236차 해외성회(236th Overseas Assembly)  
 출국 필리핀(Philippines) 중부 루손지역 원주민목회자세미나(대회장 윤성오 선교사)  
 필리핀(Philippines) 클라지 지역 원주민성회  
 필리핀(Philippines) 루손지역 교회살림(개척) 성회 귀국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KAPC 목회와 신학 포럼에서 이인승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 KAPC 목회와 신학 포럼 ... '이 시대 교회의 개혁과 부흥'

“성도의 중보기도는 목회자의 사역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장 김성국 목사)는 목회와 신학 포럼을 '이 시대 교회의 개혁과 부흥: 한국 복음주의 새로운 리더들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12일(월)과 13일(화) 오후 4시(미서부시간) 줌으로 개최했다. 둘째 날 이인승 목사(다사람의교회)가 '양육중심적인 공동체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이인승 목사는 “목회사역을 하면서 본질에 집중하게 되는데 교회마다 다양한 표현으로 집중하게 된다”며 “목회자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재능, 환경, 그리고 기질에 따라 접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우리의 몸이 기운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통치와 임재로부터 생기를 얻고 움직이게 된다”고 설명하고 “우리의 몸이 활력이 있으려면 우리 몸에 있는 각각의 지체가 자기역할을 해야 하듯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가 활력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은사들이 자기역할을 하려면 한명 한명

의 성도들이 온전해야 하고 성숙해야 한다. 결국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목사와 교사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고 육해서 봉사하게 하는 것, 즉 양육하는 것이다. 성도들은 예배하면 잘 드린다고 성장하지 않으며 소그룹을 통해 성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한 영혼에 초점을 두고 사역해야 하며 그러려면 소그룹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미나를 통해 사역에 있어서 중보기도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목사는 “교회에 중보기도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 기도는 목회자의 사역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되며 기도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사라지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임재를 느끼게 되며 교회 사역이 풍성하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미나를 마치고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현 목회에서 겪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첫째 날 강의는 정갑신 목사(화성 예수향남교회 담임)가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라스베가스 커뮤니티교회에서 열린 제자부흥회에서 김우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라스베가스커뮤니티교회 제자부흥회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라스베가스커뮤니티교회(담임 이정환 목사) 제자부흥회가 지난 9일(금)부터 11일(주일)까지 김우준 목사(토론토는조은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정환 목사 사회로 11일(주일) 오전 11시에 열린 예배는 김우준 목사가 '제자의 기쁨: 내 기쁨은 다 어디로 갔을까?'(골 2:6-7; 살전 5:16-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우준 목사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리스도의 삶은 멋진 축제이다. 그 이유는 삶의 많은 고난과 아픔과 환란은 있으나 그 가운데 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역전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모두가 축제의 삶으로 불러주셨지만 즐겨워 보이고 기뻐보이는 자들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만 죽지못해 살아가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선교여행을 가셔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속에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닌 그저 형식만 갖추게 될 뿐이다.

그래서 멋진 축제를 즐기는 것처럼 보일뿐 어떠한 감사와 기쁨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성경은 율법의 렌즈가 아닌 관계의 렌즈로 읽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와 마음이 읽히게 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님은 현재 우리 손을 잡고 동행하고 계시며, 미래에는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해내는 것이 아닌 누리면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삶이라는 무대에서 예수님과 함께 즐겁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능력 있고 신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김우준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부에나팍교회 천종호 판사 간증예배

“소년 범죄, 대부분 불안정한 가정환경으로 저지르게 돼”

부에나팍교회(담임 김성남 목사)는 '호통판사', '소년심판'으로 널리 알려진 한국의 천종호 판사 간증예배를 11일(주일) 오전 11시에 드렸다. 이날 예배는 천종호 판사와 청소년(대학생 3명과 중,고등학생 10명) 총 13명이 지난 2월 5일(월)부터 12일(월)까지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열리게 됐다. 천종호 판사와 함께 온 청소년들은 대부분 위기가정에서 잠시 이탈하여 소년재판을 통해 법무 명령으로 짧게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현재 판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만사소년'이라는 재단의 도움을 받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성남 목사 인도로 열린 이날 예배는 심현식 장로가 기도했으며 Six Tringphil Guitar Ensemble이 특별 연주했다. 이어 천종호 판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롬 12:1-2)'라는 제목으로 간증했다. 천종호 판사는 “부산 서구 아비동 까치고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신앙적으로는 기독교와 인연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으며, 집안 사정이 어려워 9남매가 한 방에서 살아야 하는 환경에서 자랐다. 교회에 처음 가게 된 계기는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였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교회에서 공부를 하며, 주말에는 교회에서 생활하다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는 교회 생활 때문에 학

교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님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할 것 같아서였다. 법조인이 되고 싶었고 서울에 있는 법대에 가고 싶었지만 학력고사 성적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정도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친구의 도움으로 부산대 법대에 진학할 수 있었고, 지금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판사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소년원에 입소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불안정한 가정 환경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며, 소년원 퇴소 후 그들을 받아주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 회복 센터를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국회에서 청소년회복센터 예산을 편성하게 했으며, 사단법인 만사소년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세 곳에서 소년원을 퇴소한 아이들을 수용하는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아이들을 위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하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김성남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천종호 판사가 간증하고 있다



샌디에고한인연합장로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주일예배에서 손병렬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 샌디에고한인연합장로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주일예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함을 믿을 때 기적 일어나”

샌디에고한인연합장로교회(담임 강용훈 목사)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예배가 18일(주일) 오전 11시에 거행됐다. 이번 예배는 손병렬 목사(포항중앙교회)가 강사로 참여하여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강용훈 목사 사회로 열린 예배는 손대선 장로가 기도했으며 손병렬 목사가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요 20:19-2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손병렬 목사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커스 하여 사역 하셨으며 12명을 선택하여 제자훈련을 하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지내야 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예수님의 첫번째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였다. 우리 역시 여러 가지의 이유로 두려워하고 불

안해하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365번 나온다. 세상을 보면 두렵고 연약한 나를 보면 두렵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신다. 교회는 평안의 공동체이고 서로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이고 예배를 통해 평안을 맛보아야 한다. 둘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미래를 향해 꿈을 꾸는 것이다.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다. 셋째 '성령을 받아라'이다. 성령 증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다. 매일매일의 삶이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새로운 50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손병렬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 서부교계 게시판

**2024 제11회 미주청소년 정체성 찾기 효 글짓기 & 그림 공모전**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는 2024 제11회 미주청소년 정체성 찾기 효 글짓기 &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대상은 킨더부터 12학년까지이며 공모주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미래의 모습은 뭐가요?'이다. 제출기간은 3월1일(금)부터 25일(월)까지이며 제출양식은 글짓기는 레터용지 사이즈로 3페이지 12포인트이며 그림은 14"X17"이다. 참가비는 작품당 20달러이며 제출방법은 우편(7342 Orangethorpe Ave, Ste B 113, Buena Park, CA90621). 이메일(hyosarangus@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시상식은 4월20일(토) 오후 2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다.

▲ 문의: (714)670-8004, 833-2710

#### Love in Spring 애나하임 가든 미니콘서트

Love in Spring 애나하임 가든 미니콘서트가 팀교회(1100 E Orangethorpe Ave, #201, Anaheim, CA)에서 3월2일(토) 오후 6시에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소프라노 신선미, 바리톤 장상근, 박트리오, 반주자 김주영이 출연한다.

▲ 문의: (714)853-0771

#### 달라스중앙감리교회 임현수 목사 간증집회

달라스중앙감리교회(담임 배연택 목사)는 임현수 목사(서울글로벌연합선교훈련원TMTCC) 간증집회를 3월1일(금) 오후 8시에 갖는다.

▲ 문의: (972)258-0991

**한길교회 박종호 장로 초청 이웃과 함께하는 찬양집회**  
 한길교회(담임 고광선 목사)는 박종호 장로 초청 이웃과 함께하는 찬양집회를 25일(주일) 오후 4시에 갖는다.

▲ 문의: (323)735-0200

#### 강찬 목사 찬양콘서트

플라워마운드교회(담임 김경도 목사)는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 찬양콘서트를 3월1일(금) 오후 8시에 갖는다.

▲ 문의: (214)513-7707

#### 2024 미주한인침례교 선교대회

2024 미주한인침례교 선교대회가 3월 1일(금)과 2일(토) 양일간 타코마제일침례교회에서 개최된다. International Mission Board와 타코마제일침례교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선교대회의 주강사는 토드 레퍼티 박사(IMB 부총재)이며 일정은 1일(금) 오후 7시부터 9시, 2일(토) 오후 1시부터 9시. 한편 같은 날 어린이선교대회도 함께 열린다.

▲ 문의: ebae@imb.org, (804)432-6646



세미한교회 이은상 담임목사와 가수 이현우 집사가 기도하고 있다

### 세미한교회 가수 이현우집사 콘서트 은혜롭게 마칩니다

“복음,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야”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특별한 교민 콘서트를 지난 2월 9일(금)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수요예술무대', '불후의 명곡', '이현우의 음악앨범', '나는 가수다' 등 수많은 방송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진 가수 이현우 집사와 함께 가요와 간증과 찬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현우 집사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미국 이민을 오게 되었고 한인교회에 출석하게 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현우 집사는 '슬픔 속에 그대 지워야만 해', '헤어진 다정 그레이스'를 불렀으며 이현우 집사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며 자주 듣는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콘서트에 참석한 모든 이들과 함께 부르며 콘서트를 마무리 하였다.

한편 콘서트 서두에 이은상 목사는 '어떤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라(골로새서 3장 23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은상 목사는 "우리가 살아가며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에 교회 안의 일이든 교회 밖에서의 일이든 어떤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임을 전하였다. 이 목사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오셨고,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은 변치 않는 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복음을 우리가 항상 전해야 할 것인데,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전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가수 이현우 집사의 노래와 간증, 찬양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은상 목사는 "연예인이 크리스천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때 세상의 잣대는 더 까다롭게 높아지지만 그럼에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아드님 발 벗고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 '다음세대를 이음세대로' 한국교회 연합해 기도한다

#### 여의도순복음교회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개최

20일 오후 서울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대성전. 좌석을 가득 채운 7000여 명의 기도 열기로 예배당은 후끈 달아올랐다. '다음세대를 이음세대로'를 주제로 한국교회 다음세대지킴이 연합(한대연·공동대표 원성웅 이재훈 한기채 목사)이 개최한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현장이었다. 기도회는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기독교 인구 급감과 교회학교 추락,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으로 인한 성오염 위기 등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전반에 걸쳐 엄중한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 기도하는 자리였다. "한국교회와 다음세대, 다시 일으켜 봅시다." 한대연 공동대표인 한기채 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외치자 참석자들은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통성기도를 이어갔다. 이어 4인조 가스펠 보컬 밴드인 크룩스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호수나' '주님의 사랑' 등의 찬양곡을 이어 부르며 기도회는 더욱 뜨거워졌다. 이어진 특강에서 제약규 한동대 명예교수는 교회 내 다음세대 소멸과 저출산 문제의 해

결을 위한 열쇠는 교회가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해법은 교회 내에 아이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돌봄 프로그램"이라며 "돌봄 공동체를 운영하면 아이들을 교회에 오게 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도 도움이 된다. 본인이 한동대 VIC 초중등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초등방과후 돌봄 공동체를 해보면서 깨달았고 이것이 전국 교회에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니엘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찬수 분당우리교회 목사는 젊은 세대를 위협에 빠뜨리는 사탄의 '반복' 전략과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이목사는 "외국의 미디어 매체를 보면 알 수 있듯 우리나라에 생소한 동성애와 동거 문화는 이 '반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니엘의 단호한 태도를 닮아 다음세대도 동성애와 차별법 등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회를 돌봄센터로, 양육의 기쁨 주는 공간 만들자

#### 예장합동, 연합기도회 시작으로 저출산 극복 100일 기도행진 펼쳐

한국사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계의 입법청원운동이 힘을 얻고 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을 영유아 돌봄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은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교단 차원에서 100일간의 릴레이 기도운동도 펼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이정호 목사)는 18일 경기도 화성 주다산교회(권순웅 목사)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명자 헌신예배 1차 전국연합기도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회의 제도적 접근 방안이 눈길을 끌었다. 강유진 총신대 교수는 예장합동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본부장 이성화 목사)가 입법청원운동을 추진 중인 '건축법 개정안 제19조 3항' 신설과 관련한 교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해당 조항은 '0~3세 영유아 보육시설 허가의 경우 복수 용도에 대해 같은 시설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을 영유아 돌봄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같은 방안은 최근 여의도

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가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와 교회학교 프로그램의 연계 방안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교회 소속 기도처 136곳을 포함해 교회를 돌봄공간으로 개방하는 방식이다. 강 교수는 "돌봄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라며 "기독교 신앙이 도전받는 시대에 교회가 자녀 양육의 기쁨을 제공할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도회는 4명의 연사가 '릴레이 특강'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강사는 예장합동 직전 총회장인 권순웅 주다산교회 목사였다. '출산 사명'을 제목으로 강단에 선 그는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가 됐다"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여러 시책이 있고 많은 기관이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진정한 해법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목사는 "한국교회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우선시했던 것을 회개해야 한다"며 "오늘날 한국교회가 출산의 사명과 선지자적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예장합동 총회가 펼치는 100일간의 기도행진은 전국 6개 권역에서 이어진다.



### "변화하는 시대의 물꼬 트는 선교 전략 논의한다"

#### 엔코위 후속모임 이어가는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대림감리교회에서 제34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법인이사 에 김경진(소망교회) 김병삼(만나교회) 박동찬(일산광림교회) 목사, 김충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 세계선교회 총무를 세웠다. KWMA는 지난해 개최한 '2023년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엔코위)' 후속 모임을 이어가며 한국 선교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KWMA 법인이사회 이사장 이규현 수영로교회 목사는 인사말에서 "오는 9월에 열리는 세계복음주의권 로잔대회를 위해 부산 목회자들이 해운대 백사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기도회를 계획 중

에 있다"며 "KWMA가 다양한 형태의 선교 전략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의 물꼬를 트는 진지한 선교 방안이 담긴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기총회에서 강대형 KWMA 사무총장은 지난해 사업보고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연합사업 등을 보고했다. 특별히 NS홈쇼핑 지원으로 50명의 은퇴선교사에게 매달 물품 지원을 했다고 전했다. 올해에는 KWMA 산하 45단체 소속 47개국 148명 선교사에게 매달 후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WMA는 엔코위에서 논의한 세계 선교 방향성을 비서구교회 리더들과 함께하는 후속 모임을 확대·지속할 예정이다. 오는 5월 1~4일 방콕에서 열리는 비서구

교계 지도자들과 모임을 이어 오는 10월 경기도 가평 핑그림하우스에서 한국선교지도자포럼 등이 예정돼 있다.

KWMA는 4명의 법인 이사 이어 운영 이사 에 김여호수(서울드림교회) 박완철(남서울은혜교회) 이재일(인천제일교회) 천영태(정동제일교회) 목사를 선임했다. 또 선교계에 모범이 된 12개 교회와 4개 기관, 18명에게 시상했다. 대림감리교회는 네팔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등 재난 지역에 적극 지원하며 재건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서울드림교회 대전제일교회 샘깊은교회 등이 다양한 선교 사업에 지속해서 참여했다. 미래희망가정연구소는 선교사 재정, 은퇴 후 경제 상담 등 다양한 선교 정보를 제공하고 '오이도포럼'을 개설해 선교사 가정과 사역자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기총회에 앞서 KWMA 회장 주승중 주안장로교회 목사는 '매력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주 목사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불의 이웃을 구제하는 선한 사역 등에 힘쓰며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 사랑을 받았다"며 "우리의 착한 행실과 선교적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 전주예수병원, 캄보디아 예수병원 개소

#### 캄보디아에 선진화된 의료 환경 구축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캄보디아 예수병원을 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캄보디아 예수병원은 내과와 안과,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피부과 진료를 담당한다. 전주 예수병원에서 파견한 정금모 소화기내과 과장과 이우경 간호사 등이 합류한

다. 약사와 병리사,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를 포함해 약 70명이 병원 개소를 준비했다. 신충식 예수병원장은 "202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의료 진출 프로젝트에 전주 예수병원이 선정된 이후 3년 만에 이뤄낸 쾌거"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기술

을 캄보디아에 알리고 선진화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등 의료선교 병원으로서 글로벌 허브 병원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배좌섭 국제의료사업단장은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철저한 준비로 해외 병원 설립의 첫발을 내딛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말했다. 예수병원의 의료진과 전공의들은 2014년 캄보디아를 방문해 사랑의 인술을 펼쳤다. 3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현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료 교육을 제공했다.

김병선 예수병원 홍보실장은 "10년 전 캄보디아에서 전공의로 의료봉사를 시작할 때 막연하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다"며 "그런 막연함이 현실이 되어 캄보디아에 지속 가능한 선진화된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 기쁘다"고 개소소감을 밝혔다.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Tel : (636) 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mission 선교의 창 (232)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사도행전에 나타난 2가지 선교 모델

선교의 모든 원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사도행전은 그 중심에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선교 모델이 있다. 그것은 사도적 선교 모델과 대중적 선교 모델이다. 근대 이후 개신교 선교 역사를 돌아보면 사도적 선교 모델을 근간으로 사역해 왔다. 또 다른 한 축은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선교가 이루어졌다. 그들은 교회의 파송이나 후원을 받지 않았으며 자연인으로서 자기 직업을 따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마치 바람결에 흩날린 들꽃씨를 연상케 한다. 이런 야생적 선교 모델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왔다. 하지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COVID19 이후 지금 세상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각 족속과 나라들의 선교환경은 창의적 접근 지

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는 사도적 선교 모델의 전형이다. 이러한 사역의 패턴은 근대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회의 선교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 선교 여행은 다음과 같다. 바울은 총 14년 동안 4번에 걸쳐 약 14,700km를 동선했다. 제1차 선교는 (행13:1-14:28) AD 46~49경이다. 동반자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었다. 주요 목적지는 구브로와 튀르키예였다. 동선 거리는 약 2,250km였다. 제2차 선교는(행15:36~18:22) AD51~53경이다. 동반자는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였다. 행선지는 수리아 튀르키예, 그리스, 예루살렘이었다. 동선 거리는 약 4,500km였다. 제3차 선교는 (행18:23~21:26) AD54~58 경이다. 동반자는 디

오로는 팔레스틴, 사상적으로는 시오니즘(Zionism),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때가 됨에 성령께서 안디옥 공동체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셨다. 비로소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 등 열방과 온 민족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다. 그 특징은 첫째 조직화이

투보다 여러 사람이 전문화, 분업화, 조직화되어 팀워크를 이룰 때 뫄개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성령께서 사도적 선교 모델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 하지만 이 모델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쓰셨던 종들과 사역 구조가 달랐기 때문이다. 21세기 적합한 선교 모델을 무엇일까?

2-1. 대중적 선교 모델의 사례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11장에는 흩어진 사람들의 선교 이야기가 나온다. 첫번째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온다. 저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를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나간 그리스도인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행 8:1). 빌립은 그들 중의 한 명이자 7집사의 일원으로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행 8:5, 12, 35, 40). 두 번째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행

전11장에 나온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행 11:20-21). 이상 두 번에 걸쳐 언급된 흩어진 사람들은 같은 사람인지는 명확치 않다. 분명한 것은 저들이 유대사 문화권(E-2)뿐만 아니라 타 문화권(E-3)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로마의 배부자인 고넬료(행 10:1-4),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행 18:24-28)가 나온다. 이

2-2. 대중적 선교 모델의 특징

대중적 선교 모델은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도 수없이 있어 왔다. 신학자 브루스(F.F.Bruce)는 “영국에 기독교를 전파한 것은 광범한 사람들, 곧 고을(Gaul) 지방에서 온 상인들이었다”고 소개했다. 중세에는 모라비안 교도들과 바젤

도 자신을 선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조직이다. 파송교회나 선교단체 같은 기관이 없다. 셋째 의도이다.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누군가에게 보고 해야 할 책무도 없다. 넷째 방법이다. 획일적이지 않다. 직업 따라 이동하며 삶의 현장에서 복음전파를 한다. 다섯째 재정이다. 후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 사역을 한다. 풀뿌리 선교를 제창한 손창남 선교사는 “요리는 요리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 노래는 가수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선교는 파송 받은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과된 준엄한 책무이다.” 백번 천 번 맞는 말이다.

맺음 말

위에서 보듯 사도행전에는 선교를 위해 사도적 모델과 대중적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이 두 모델은 하나님의 선교에서 이원적 사역 구조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하나였다. 단지 각각 은사와 소명을 따라 그 직업이 달랐을 뿐이다. 하지만 기독교회는 지난 2천 년간 사도적 선교 모델을 근간으로 해왔다. 즉, 교회는 소수의 몇 사람을 선택해 파송하고 나머지 절대 다수의 성도들은 선교에서 뒷짐을 지게 한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선교는 인구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제 오늘의 기독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익숙한 관습을 깨고 본질로 돌아가야



21세기 지구촌은 선교의 전, 후방이 없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 사도적 모델은 조직적이며 선택받은 소수를 통해 하는 선교사역이다. 대중적 모델은 자연적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선교적으로 동원하는 일이다.

역(CAN : Creative Access Nations)은 물론이고 선교사 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개방된 지역(OAN: Open Access Nations)에서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 우리 기독교회가 추구해야 할 선교적 방향은 무엇인가? 그 답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다.

1-1. 사도적 선교 모델의 사례

사도행전 13장~ 28장에는 바울과 그 팀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의 이야기가 나온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로 해서 여러 지역을 순회

모데와 누가 등이었다. 행선지는 튀르키예, 그리스, 레바논, 이스라엘이었다. 동선거리는 약4,350km였다. 제4차 선교는 (행27:1~28:16) AD59~62 경이다. 동반자는 로마 경비병, 누가 등이다. 행선지는 이스라엘, 레바논, 튀르키예, 그레데, 멜리데, 시칠리아, 로마였다. 동선 거리는 약 3,600km였다.

1-2. 사도적 선교 모델의 특징

본문 행전 13~28장에 나타나는 선교 모델은 2,000년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전까지는 복음이 지역적

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군대가 힘이 있는 것은 조직화가 잘 되기 때문이다. 세계선교를 위해 안디옥 교회가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다. 둘째 파송이다. 안디옥 교회는 최고의 고급 인력인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보냈다. 교회가 희생을 감수한 것이다.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자투리 남은 것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지 않는다. 셋째 팀워크이다. 세상만사 모든 이치가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과 기관이 힘을 합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선교는 각개전

전11장에 나온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행 11:20-21). 이상 두 번에 걸쳐 언급된 흩어진 사람들은 같은 사람인지는 명확치 않다. 분명한 것은 저들이 유대사 문화권(E-2)뿐만 아니라 타 문화권(E-3)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로마의 배부자인 고넬료(행 10:1-4),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행 18:24-28)가 나온다. 이

선교회 역시 대중적 선교운동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저들은 모두가 자기직업을 가지고 생계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선교사역을 했다. 대중적 선교모델은 비 제도권 선교이다. 선교의 주체는 모든 성도들이다. 선교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다. 선교지역은 광범위하다. 조직은 없으며 자유롭다. 재정은 후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파송교회는 따로 없다. 선교전략은 자유롭다. 복음의 수용성은 비교적 반발이 없다. 이 밖에 대중적 선교 모델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정체성이다. 선교를 감당하고 있음에

한다. 성경의 지침은 “모든 이가 모든 곳으로”가는 총체적 선교이다. 지상 과업은 선교사라는 대표선수 몇 명으로 될 일이 아니다. 선교는 특별한 교회나 선교단체의 전유물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전임으로 파송되었던 그렇지 않든” 누구나 자기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으로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마치 사도 바울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사각오(一死覺悟)의 정신(행20:24)으로 헌신한 것처럼! 사도행전의 선교가 그러했다.

Jrsong007@hanmail.net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31강 연합국 전투, 갈렙 그리고 안식 (1) (여호수아10-24장)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가라’하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을(출 15:25, 16:4, 20:20/ 신 8:2,16, 13:3) 통과해야만 합니다. 사단은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고전 10:13).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기브온은 큰 성이고 그 사람들은 강함에도 이스라엘과 화친하므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에 대진하자(수 10:1-5) 기브온에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합니다(수 10:6).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용사와 더불어 전쟁을 위하여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수 10:8)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였고(수 10:10)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어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은 자를 죽이셨습니다(수 10:11).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시므로(수 10:12-14) 하나님이 적군을 넘겨주



신 전쟁에서 (수 10:19) 승리를 거두고 다섯 왕들의 목을 발로 밟고 죽여 나무에 매달았다가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큰 돌로 막아버립니다(수 10:20-27). 이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발뒤꿈치를 상하는 상처를 입겠지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창 3:15)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막게다’(수 10:28), ‘밋나’(수 10:29,30), ‘라기스’와 ‘게셀’(수 10:31-33), ‘에글론’(수 10:34,35), ‘헤브론’(수 10:36,37), ‘드빌’(수 10:38,39)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수 10:40). 또한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

서 가사 그리고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수 10:41,42). 심장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범되지 않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소통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군을 넘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을 친히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의 증언은 ‘전적

인 타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으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바로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앞서 설명한대로 모든 것을 지켰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작아질 것인데 그들은 철저히 패역했기에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불가능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갈 것입니다.

hfamilyfa@gmail.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시온의 거민 (시87:1-7) 찬 543장

고라 자손의 시편 87편은 히스기야 왕이 앗수르를 이긴 후 드린 찬양입니다. 바벨론 귀환 백성의 수가 적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보인 본 시편에서 우리는 장차 나타날 신약 교회의 부흥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교회에 특별한 사랑을 쏟으심을 봅니다. 시온을 사랑한 것은 구원받은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1-3) 둘째, 하나님을 아는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

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요 17:3) 교회는 바로 이것 위해 존재하고 이것이 모든 활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범세계적 구원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합(애굽), 바벨론, 두로와 구스(4-6)에서 지존자의 부름을 받는 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범세계적 구원의 물결이 일어날 것을 보여준대로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큰 부흥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 화 부르짖는 기도 (시88:1-18) 찬 479장

믿음의 기도가 바른 기도임을 본문은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기도상황, 흑암이 친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14-18) 스테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어두움도 헛것이 아니고 진실한 기도를 드러 기이한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 기도의 세계입니다. 둘째, 기도의 목적. 이 성도는 주의 성품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주의 기사로 인하여 주를 찬송함으로써 주의 인자와 성실과 공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란 것입니다.(10-12) 기도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품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셋째, 기도의 확신. 시인은 하나님 상대로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13) "아침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앞에 달하리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놀라운 응답을 체험합니다.

## 수 성도의 할렐루야 (시89:1-18) 찬 13장

다윗의 함창대장, 여두둔이 지은 시로 알려진 본문에서 우리는 유복자인 성도가 찬양할 이유를 발견합니다.(15) 첫째, 주의 인자 때문에 찬양합니다.(1-2) 인자란 사랑, 자비, 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노래 중 노래입니다. 독생자를 주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둘째, 주의 성실 때문에 찬송합니다.(14) 그 사랑은 성실의 배경에

서 나온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그 사람의 행동이 모든 언약의 기초이기 때문에 다윗은 인자와 성실을 따르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위를 견고케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의 권능 때문에 찬양합니다.(6-13) 그의 인자와 성실이 영원한 것은 그의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창조자요 섭리의 주이신 전능자가 나의 하나님임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목 언약을 기억하라 (시89:19-52) 찬 133장

에단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탄식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첫째, 에단의 고통. 그는 하나님의 진노(38-45)로 원수에게 휘방을 당하는 민족적 수난(46-52)을 탄식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영적 고통을 생각해 합시다. 둘째, 고난의 원인. 언약과 기로 인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몰리치고 관을 땅에 던지시며 울타리의 보장을 모두 거두셨습니다.(38-45) 마치 엘리시대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되었습

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불순종할 때는 밖에 버려진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어 버립니다. 셋째, 언약회복의 길. 여기 나온 언약이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으로 기름 부으심의 보증 공, 내주시는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은 영원한 보호, 영원한 승리, 영원한 회복을 보장한 것입니다.(렘 1:13)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언약을 맺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임을 확신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 금 인생이 무엇이나? (시90:1-7) 찬 502장

40년의 광야생활을 포함한 120세의 일기에 보인 모세 기도에서 우리는 잠된 인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인생은 하나님을 영원한 피난처로 삼도록 창조되었습니다.(1-2) 무에서 시작하였기에 하나님만을 거처로 삼을 때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생은 잠깐 있다 가 돌아가는 티끌입니다.(4-6,10) "흙으로 돌아가라"는 명령대로 인생은 지나간 어제며, 밤의 한 경점이며, 홍수가 쓸

어간 순간이며, 잠깐 자는 순간이며 신속히 지나가는 화살 같고 아침 풀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수고와 슬픔으로 특징 짓습니다. 죄로 인해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자로운 만족하는 존재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만족함을 얻는 모세의 고백은(13-17)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보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인 것을 증거합니다. 모세의 분을 따릅니다.

## 토 주를 찬양하라 (시98:1-9) 찬 43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밝힌 본문에서 우리는 그 만을 찬양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그를 세대로로 찬양해야 합니까? 첫째, 그는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1-3) 자기 백성을 향하신 구원이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이루심을 본 시인은 그를 찬양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하심이 모든 찬양의 주제가 되어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는 만유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4-8) 그 구원 주는 온 땅을 다스리는 섭리주이십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거기 거주하는 모

든 것이 그의 손에서 움직이는 것을 안 시인은 그 분만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것이 그 손 안에 있음을 아는 우리 역시 그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그는 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9) 역시 시인은 만유의 마지막에 의의 심판을 내다보고 그 분께 찬양합니다. 천히 임하시고 모든 것을 공평과 정의로 판단하실 그 분께 찬송해야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고 재림으로 완성될 심판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며 살아갑시다.

# 교회음악 이야기(53)



윤임상 교수  
(웰스미션대학교대학원)

## 힘한 십자가 능력있네 (The old rugged cross made difference)

모세의 생애를 보면 참 특이한 대조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대조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자녀였던 그가 여왕의 아들이 되어 40년을 바로 궁정에서 지내며 그 시대 삶 속에서 "나는 모든것을 할 수 있다(I can do everything)"고 호령하며 애굽 사회를 지배하며 살았습니다. 이후 궁정에서 쫓겨나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며 양떼를 지키는 자로 전락되면서 그 시대 삶 속에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I can't do anything)"는 철저한 자기 비움의 시간이 되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대과업의 리더로 선택되었습니다. 말에 어울리고 소극적이었던 그는 그 시대 삶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I can do everything in God)" 라는 고백이 이때 표현됩니다. 김장환 목사님은 모세의 이런 독특한 생애를 비유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노예의 자녀였으나 여왕의 아들이었다. 오두막에서 태어났으나 궁중에서 살았다. 궁정에서 교육 받았으나 광야에 거했다. 목자의 지팡이를 가졌지만 무한한 능력을 갖췄다. 바로로부터 망명한 자였으나 하늘의 사신이였다. 율법의 증여자였으나 은혜의 선구자였다. 모압에서 홀로 죽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유대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를 장사 지내셨다." 이처럼 대조법을 사용해서 아주 적절하게 모세의 삶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극명한 대조를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제기되고 있는 신학적 논쟁을 바로 잡아 주기 위해 고린도 서신을 쓰는 가운데 인사와 감사를 나누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거론한 뒤 바로 이어 십자가 역설의 진리를 이야기 합니다.

곡을 붙여서 1980년 찬송가로 발표하게 된 "십자가 능력있네(The old rugged cross made difference)"라는 곡입니다. 이 찬송은 윌리엄이 감리고 북음 전도자인 조지 버나드 (George Bernard 1873- 1958) 가 쓴 "갈보리 산 위에 (The old rugged cross)"를 레퍼런스 삼아서 만든 곡입니다. 그가 곡을 쓰게 된 동기를 "낙담과 실망에 찬 멸망하는 자들이 십자가에서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였기에 나는 그 십자가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겠다는 결의로 가사를 만들어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찬양을 깊이 되새기며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십자가 고통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축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일깨우게 합니다. 그래서 C. S. 루이스 (Clive Staples Lewis, 1898-1963) 는 "고통은 베일을 벗기고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는다"라는 역설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순절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수난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틴 루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 1899-1981) 목사님이 십자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불쾌하게 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세기에도 사람들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환영받는 것도 아니고 대중에게 인기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모든 사도가 전파한 설교의 핵심이었다는 십자가의 역설을 그의 책 "십자가(The Cross)"에서 이야기합니다.

올해 사순절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깊이 새기며 그 복음으로 인한 진실의 깃발을 꽂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마땅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놀라운 대조, 즉 상심과 패배에 얽매인 삶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준 그 낡고 거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싶습니다.

iyoon@wmu.edu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증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80. 아버지의 남성상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에서는 남성이라는 성(性)을 '우월함'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낡은 주장 정도...

편의 증가나, 명예퇴직 또는 해외로 부인과 자식을 뒷바라지하며 소위 '기러기아버지'들의 정신적 소외는 현대남성들에게는 하나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런 이미지의 변화와 현대남성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연결고리가 아래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자녀들은 커서도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은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의 피부에는 수많은 접촉 수용돌기라는 신경돌기가 흩어져 있어서 신체접촉을 하게 되면 상황에 맞는 호르몬이 두뇌에서 분비된다고 합니다. 신체접촉은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이며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많이 안아주고 레슬링이나 씨름 같이 신체접촉이 많은 놀이를 함께 하면 아들은 강한 남성상을 경험하면서 자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접촉지향적이기 때문에 딸은 더 많이 안아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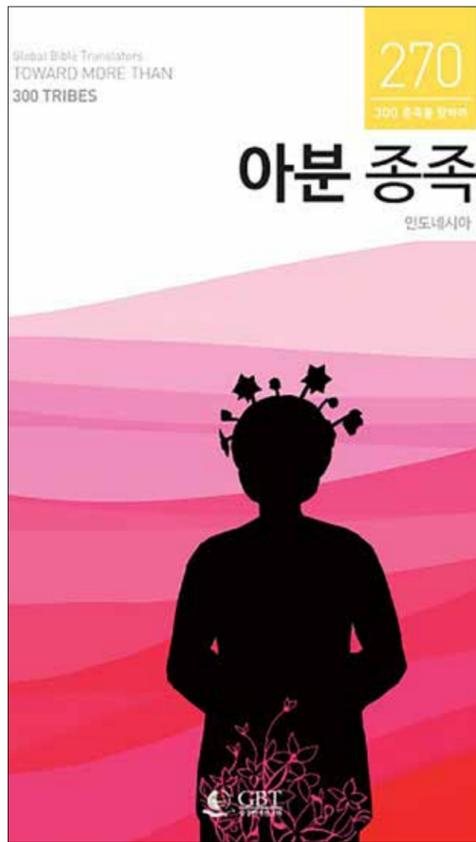
아버지의 남성상을 경험하고 자란 딸들은 여성으로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성답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출소녀의 90% 이상이 아버지와의 접촉 결핍증 환자이며, 미혼모의 70% 이상이 아버지 부재 속에서 자란 여성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성경적인 남성상은 (1)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불신자)와는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주님의 결혼원칙을 따르는 길입니다. (2)자신이 아내의 머리이며 가정의 영적지도자라는 신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3)부부사이에 주신 자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4)자신이 가정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5)가족들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성화되어가는 약화된 아버지의 남성상 회복이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는 첫걸음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남성상을 회복하여 아들에게 전수해야 하며, 딸에게는 성경적 남성상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함께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은 물론 딸은 자신이 먼저 훌륭한 아내감이 될 수 있도록 정직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네시아

▲ 종족명 아분 종족

▲ 인구 약 3,000명

▲ 종교 민속 종교 40%, 복음화율 60%

▲ 복음매체 신약 번역됨(2004), 구약 번역 필요, 복음 매체 있음

▲ 종족프로파일 새머리 반도의 북쪽에서 18개 마을과 고립된 몇몇 소부락에 퍼져 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거주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 외부의 접촉도 적었는데 이들이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던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 기도제목 1. 아분족이 번역된 신약 성경과 복음 매체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도록 2. 아분족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3. 잘 훈련된 현지인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 굳건해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나눔 코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에 성실하십니까?”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16:7)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요16:13)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든 진리 안에서 생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주님의 삶을 나타내기 위해 성령님의 내주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강림이 있는 영적 오순절의 삶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초대 교회의 출발도 오순절의 삶으로 출발 합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삶에 모든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 능력 이요 힘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며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섭리가 유일하게 활동하심을 보여줍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에서 성령님만이 인도하실 권한이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매일 매일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에 성실해야 합니다. 성도의 성실은 모든 것을 주님의 공로로 영광을 그분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

은 다 내 것이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요16:13-14) 성도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사역하며 살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는 0%임을 인지하고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말 할 때에도 나를 숨기고 주님만 온전히 나타내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체험되어진 신비한 은혜까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신경규 목사 (좋은마을교회 담임)

까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고후 12:2)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주님 뒤에 숨기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아닐까요? 오직 은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외침이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에 충만케 하소서.

담임목사 청빙 광고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살렐 벨엘 교회에서 함께할 담임 목사를 찾습니다

저희 살렐 벨엘 교회는 ARP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교단 제일 노회 (First Presbytery) 소속이며 노스 캐롤라이나 살렐에 위치 하고 있고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28 년동안 우리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은퇴를 하시게 되었기에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자기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 성경적인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진 자
한국어 와 영어 모두 능통한 자
영주권자 나 시민권자 로써 이민법상 신분에 문제가 없는자
ARP 교단에서 인정 한 학교의 M Div. degree 이상 소유자
ARP 교단 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인준 기준에 결격 사유 없는자
이민교회 목회 사역 3년 경력 이상 (전도사 포함 5년 이상)
미국과 한국에서 신학 공부 한자
연령: 43세 - 55세 (만 나이)

제출 서류:

- 이력서 (사진과 가족사항 포함) - 3 page 이하
자기소개서 (사역 경험과 목회 비전 포함) - 10 page 이하
목사 안수증명서
출업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최근설교영상(2년 이내) - YouTube Link 또는 영상 파일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 바랍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2024년 3월 31일

관심있는 분은 서류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 들 이 있다면 함께 첨부해 주세요.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의껏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빙위원회 위원장 이민혁 장로 email: bethelkc7121@outlook.com Cell: 704-724-2465

살렐벨엘교회 청빙위원회

7121 Delta Lake Dr, Charlotte, NC 28215 | (704) 566-7173

Youth Pastor 청빙공고

뉴욕 퀸즈 칼리지 포인트에 위치한 뉴욕선교교회에서 Youth Pastor를 모집합니다.

- 1. 이중언어 사역 (영어설교 가능하신 분)
2. 파트타임 사역
3. M.Div. 재학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4.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2) 신앙과 소명 간증문
3) Youth사역에 대한 비전

서류제출: newyorkmissionchurch@gmail.com

사례비 및 기타 청빙 관련 문의: 718-451-6348

The New York Mission Church located in College Point, Queens, New York is seeking a Youth Pastor.

- 1. Bilingual ministry (preach in English)
2. Part-time ministry
3. M.Div. Currently enrolled or graduated
4. Documents to be submitted:
1) Resume and self-introduction
2) Testimony of faith and calling
3) Vision for Youth Ministry

Submit documents: newyorkmissionchurch@gmail.com

Inquiries regarding honoraria and other invitations: 718-451-6348

### 제 9회 신앙도서독후감 공모전 우수상

##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를 읽고

임보라

(북가주새누리교회)



나에게는 다섯 살 난 딸이 하나 있다. 마냥 해맑고 사랑스럽게 웃지만 하던 아기가 어느덧 수백 일을 들숨 날숨 부단히도 호흡하더니 이내 세상 공기를 제법 마신 인간의 구색을 갖추어 가며 끝없는 질문과 솔직한 감정들을 쏟아내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아이를 낳기 전까지 7년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다면 가장 귀한 보물인 신앙의 유산을 꼭 남겨줄 수 있기를 기도했었다. 그러나 딸이 자라가며 그 아이가 오롯이 자신의 경험과 사고의 소용돌이에서 헤엄치는 동안, 나 역시 일상에서 민낯으로 드러나는 나의 투박한 물장구 속에서 복음의 반짝이는 빛을 전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때로 무지했고, 종종 무관심했으며, 자주 무력감을 느꼈다. 모든 부모가 두려워하는 사춘기가 다가올수록 나의 마음은 조금씩 꺼져갔다. 여전히 내게도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내지는 일종의 반발심과 원망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 깊은 곳에 불편하게 자리잡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어떠한 진심과 설득력으로 신앙을 전달할 수 있을지 미지수였다. 다만, 이러한 나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부터라도 찬찬히 내가 믿고 붙잡는 복음을 정리해보자는 용기로 의지를 다

졌을 때 접하게 된 책이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였다. 처음에는 저자가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이고, 아이들과 신앙에 대해 가까이 대화하는 분이라기에 조금은 낮은 눈높이에서 쉽고 가볍게 읽을 만한 기독교관 즉 문득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책을 열었던 것 같다. 그러나 목회적인 추천인들과 그들의 추천사를 거쳐 목록을 훑는 순간, 이것이 어린 딸을 무릎에 앉혀놓고 재밌고 교훈적인 성경 구연동화를 들려주는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한껏 머리가 큰 사춘기 딸이 들이밀 서슬퍼런 이성적 지혜와 균형잡힌 감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앙의 방패들이 차곡차곡 전시되어 있는 것만 같았다.

저자는 크리스천이자 의사로서 지성을 쌓아가는 과정, 수술대에 오른 의료 행위를 시행하는 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 전통과 선교 현장에서의 신앙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유를 풍성하게 제공한다. 딸의 예리한 면서도 다채로운 질문의 스펙트럼을 포용하고 그 안팎으로 공감과 가르침을 동시에 줄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먼저 믿은 아버지

로서 얼마나 책임감 있는 신앙의 걸음을 걸었는지를 보여준다. 스스로가 책에서 강조한 “생각없이, 관성대로 굴러가는 태만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아버지 된 자로 마땅히 공부하고 가르칠 것들이 자동적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땅에 함께 서 있는 자로, 한 발 먼저 다녀본 자로 우리는 아이에게 역사와 전통의 흐름을 일깨워주고 함께 발맞춰 걷는 법을 배우며 옳은 곳으로 손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책 읽는 내내 자각하게 되었다.

저자는 세상이 지적하는 기독교 역사의 폭력성과 호전성에 눈 가리고 아웅하기보다 해석의 역량이 낡은 오해와 실천적 방임이라는 실패를 직시하고 기독교의 소망과 성찰을 동시에 설교했다. 또한 오늘날에 도무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혐오와 배제의 통로가 되는 동성애 논쟁과 전쟁 및 난민 문제 등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뚝뚝 그려 말하지 않고 분별력 있는 어조로 특정한 입장과 태도를 제시한다. 단,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연역적 사고나 편협한 경험에 의해 도달된 결론이 아니라 깊은 관심에서 우리나라에 방대하고 질실한 연구의 끝에 맺어진 열매들을 정성껏 바꾸기에 담아 전달하는 식이라, 설득이 강요된다는 느낌보다는 친절하게 안내받는다는 인상을 받으며 읽어나갈 수 있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씨름했던 학자들의 탐방을들을 모아 그 중에서도 가장 권위있고 무결

한 내용들을 체에 걸러 고운 가루를 내어 딸에게 먹여주고자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다. 특히, 가장 까다롭고 난해한 전쟁과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평화와 이상을 꿈꾸고 이루어 가는 궁극적 소망을 놓치지 않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머뭇거리거나 현실의 냉혹함과 부조리의 거대함에 짓눌려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은 되지 말자는 결의는 딸이나 독자들뿐만 아니라 저자 스스로에게도 계속해서 되뇌이는 다짐처럼 느껴졌다.

그의 글을 읽으면 입을 수룩 나는 저자가 균형중요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균형감은 고백 풀린 열정으로 하나님에 앞서, 혹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이들이 이제껏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심겨놓은 기독교적 불편함과 불쾌감을 기독교의 본질로부터 완벽하게 떼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성급하게”, “함부로”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낮아지고 섬기며 모범을 보이는 삶의 방식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근본적인 진리의 불변함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어 “옛 자아가 철저히 죽는 ‘정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야 함도 일깨워주었다.

사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사의 중심에는 분쟁과 투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슬프게도 많은 피흘림에는 종교 갈등과 성서의 오남용이 맞물려 있었다. 이는 곧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사회악이며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요인이라는 인식을 팽배하게 만

드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보다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죽고 썩혀져 끝없이 복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왔는지를 생생하게 보고 들었다.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극단주의와 탐욕으로 인한 신앙의 왜곡, 그리고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순종하는 무지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곧 책 전반에 걸친 저자의 접근이다. 안타깝게도 굵은 길로 접어들어 오묘되어 흐르는 복음은 생명력을 잃고 오늘날의 교회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딸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살려낸 딸이 가짜 복음에서 시선을 거두고 복음의 진수를 누리며 자기 자신과 그와 연결된 모든 이들이 복음 안에서 해방되고 복음 안에서 재창조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살려내는 것을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하는 마음으로 모든 문장을 써 내려간 듯 보인다.

위낙 방대한 양의 글을 읽고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한 까닭에 딸의 단순한 질문에도 많은 신학자와 신학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지만, 그마저도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나 고차원적인 답변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복음이 파도파도 끝없고 결코 정복될 수 없는 무한대로 풍부한 영적 자원이기에 다양한 해석학적 위치와 사유의 범위가 연결되고 맞물리며 발견되는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것을 농축하여 표현하려면 어쩔 수 없었으리라 생각이 든다. 아무리 내가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신앙 선배로서 충고의 말을 건넨다 해도 우리의 불완전함과 무의식적 치우침은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든 신앙의 반발심과 걸림돌을 만들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나 역시 겸허

하게 배우는 입장에서 먼저 깨우쳐나간 과정을 공유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각기 걸어가는 고유한 길에서 빛어가는 독특한 신앙의 신비에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출발하여 깨우침의 과정을 진솔하게 담은 책이나 사랑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쉽사리 현실의 교회와 신앙의 실망스런 면모에 낙오했고 복음 자체를 폄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필립 양시와 그레고리 보이드처럼 기독교에 대한 합리적(?) 회의감에 사로잡힌 이들을 위해 따뜻한 길잡이를 자처하는 작가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맹목적인 신자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의 대가를 치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소중히 밟아 걸어 나가길 권고하는 저자의 진심이 문장을 넘어 가슴 깊이 전달되었다. 십자가가 반드시 가로와 세로의 접점을 가로지르며 존재하듯,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네 인생도 반드시 두 가지 길을 성실하게 걸어 나가야 할 터이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각각 온전하게 한 인격에 담겨있듯이 우리도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을 품고 살아가야 할 운명과 능력을 부여받았다. 치우침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흘리신 보혈 한 방울 한 방울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우리 목숨보다도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머리로 이해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으로 새긴 신앙은 역사와 문화의 옷을 덧입으면 덧입을수록 더욱 강력한 힘과 빛으로 세대의 세대를 이어 뻗어나갈 것이다. 그 희망으로 나의 다섯 살 난 딸의 사춘기와 청년의 때와 장성하고 노쇠한 시절을 거쳐 영원히 이르는 모든 순간을 기대해본다.

### 베드로 진서 17

## 영성을 위하여 2

은퇴 후 긴장이 풀렸다. 아내는 신경 쓸 일이 없으니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책임에서 벗어나니 그렇게 훌훌 가벼운가 보다. 그 말을 들

때 목회할 때도 그런 생각이 없진 않았으나 아내를 얼마나 힘겹게 했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 역시 그런 훌훌 가벼운 마음이 든 것도 사

실이다. 당회나 제직회 때 인간이 갖는 갈등이나 성도들 개인이 갖는 문제를 목사 개인의 책임처럼 느끼고 기도하는 일도 큰 몫이고 무엇보다 설교의 부담이 가장 컸다 하겠다.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나였지만 그래도 한 편의 설교는 속칭 산고를 통해 이뤄지니 어찌 힘들지 않았겠는가?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말씀을 하지 않아 잘 모른다. 그러나

회자되는 이야기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목회 시절 새벽기도회가 너무 힘이 들어 은퇴 후에는 새벽기도회를 나가시지 않는 분이 많다고 한다. 이해가 된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그냥 새벽기도회를 나가고 그것도 정장을 하고서.

아울러 말씀 묵상과 설교 준비에 시간을 바친다. 한 목사님은 설교할 곳도 없으면서 무슨 설교를 만드느냐고 하

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던 일이니 만든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영성이 필요하고 그 영성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목회할 때처럼 똑같이 살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영성! 영성! 하고 부르짖었던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은퇴하면 영성은 필요 없는가?

revpeterk@hotmail.com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 초긴급!!!

##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 청원서 서명운동

11월 선거에 주민투표 발의안 상정을 위한 공식 법적 청원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 주민 발의안이 통과 되면?

1. 안전: 공립/사립학교와 대학에서 화장실/샤워실/라커룸을 **출생성별**로 사용하게 함
2. 공평: 7학년부터 **여학생 스포츠에 트랜스젠더 남성 참가 불허**
3. 학부보 권리 보호: 학교에서 학생을 트랜스젠더로 만드는 ‘젠더 명칭’, ‘성별 전환’ 시도 전에 반드시 **학부모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
4. 타고난 **성별 보호**: 학교에서 **학부모 허락없이 학생에게 젠더 관련 건강 및 정신 검진 혹은 시술금지**
5. **납세자 세금 보호**: 18세 미만 학생들의 트랜스젠더 의료서비스에 납세자들의 세비에서 나오는 자금 사용 금지

## California의 악법들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부모의 권리를 되찾기

### 몇 개의 서명이 필요할까요?

- 11월 주민발의안에 상정되기 위해 필요한 **유효 서명 숫자: 550,000개**
- 무효화 될 서명들을 고려하여, **총 700,000개의 캘리포니아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 **한인 커뮤니티 서명 숫자 목표: 70,000개 이상**의 싸인
- **한인 서명 마감: 2024년 4월 13일**
- **서명용지 및 설명서 보급장소**  
OC: 은혜한인교회, 갈보리선교교회, 사우스베이: 토렌스 조은교회  
LA: 미주성시화 운동본부, LA 동부: 선한목자교회(Chino Hills)



서명방법 보기 TVNEXT.ORG

서명에 관한 안내나 서명용지를 받기 원하시면 서명운동본부(310-995-3936, 323-578-7933)나 TVNEXT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청원서 서명운동본부

**고문:** 송정명, 김영길, 한기형, 최학량, 최홍주, 민종기, 김인식 (이상 목사)  
**대표대회장:** 한기홍  
**공동대회장:** 강준민, 고승희, 고창현, 고태형, 고현중, 구봉주, 국윤권, 권혁민, 김경진, 김기동, 김기섭, 김우준, 김중규, 김준식, 김지훈, 김태형, 김한호, 김호용, 남강식, 남성수, 노창수, 민경엽, 박규성, 박성규, 박성근, 박용덕, 박은성, 박한성, 방상용, 백정우, 손창민, 송병주, 신동철, 신승훈, 신원규, 안 환, 오명찬, 우영화, 윤대희, 이 서, 이영선, 이정현, 이종우, 임성진, 주혁로, 지용덕, 진유철, 최성광, 최 혁, 최희규

**각지역 대표:** 최영봉, 박재만, 이필성, 오기현, 박선호, 김우준, 전지승, 류수열, 김형길  
**지도위원:** 남가주지역 모든 담임목사  
**자문위원:** 김태오, 새라 김 (TVNEXT 대표, 408-309-4084)  
**실행위원장:** 강순영 (310-995-3936), 심상은 (714-722-4805)  
**사무총장:** 강태광 (323-578-7933)